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7년 11월 26일(주일) 제1173호



캡션.

“뜻밖의 선물이 되어주세요”

**2017년 엔젤트리 시작 ... 본당과 로비에 사연게시판 설치
현재까지 사연 1,027건 접수, 지난해 엔젤트리 후원률 100%**

2017 엔젤트리가 시작된다. 오늘 (26일) 서빙고와 양재 온누리교회를 시작으로 국내 온누리교회 캠퍼스 본당과 로비에 엔젤트리 사연게시판이 설치된다. 엔젤트리는 소외된 이웃들이 행복한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선물을 전해주는 행사이다. 평소 이웃들을 돕고 싶었지만 방법을 몰라 망설이던 성도들에게 이보다 좋은 기회가 없다.

현재까지 온누리교회에 접수된 엔젤트리 사연은 1,027건(11월 24일 기준)이다. 난민신청을 하고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세네갈 여성에게

겨울담요를 전달해달라는 사연, 우울증에 걸린 홀어머니를 모시고 일주일에 6일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예비 대학생에게 책가방을 선물하고 싶다는 사연 등이 접수됐다. 이 외에도 사랑이 꼭 필요한 곳에서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관심과 사랑을 기다리고 있다.

엔젤트리에 참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사연게시판에 게재된 사연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뽑고, 절취선에 따라 3등분 한다. 뽑은 사연 밑에 후원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는다.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은 쪽지는

엔젤함에 넣고, 천사카드를 엔젤트리에 걸면 된다. 이후 사회선교부에서 사연 주인공들의 주소를 문자메시지로 보내주면 3~5만 원 가량의 선물을 발송하면 된다. 선물 받을 이웃들을 위한 중보기도도 잊어서는 안 된다.

이기훈 목사(사회선교부 담당)는 “엔젤트리를 통해서 스스로의 삶뿐만 아니라 이웃들의 삶까지 풍성히 만들기를 바란다”면서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엔젤트리를 통해 전달된 선물들은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희망을

전사하고 있다. 지난해 접수된 엔젤트리 사연 1,505건의 주인공 모두가 선물을 받았다. 지난해 엔젤트리 사연의 주인공이었던 강원도 횡성 우천사랑교회 다니는 김빈 학생은 “저도 누군가에게 뜻밖의 선물이 되고 싶다”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264㎡ 남짓 되는 좁은 방에서 홀로 자녀 4명을 키우고 있는 윤현숙 성도(충남 서산)도 엔젤트리를 통해 따뜻한 사랑과 희망을 선물 받았다. 윤현숙 성도는 자신보다 힘든 사람들을 돕고 싶다”면서 2만 원을 후원하기도 했다.

문의: 사회선교부 02-3215-3358
엔젤트리폰 010-5726-0191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산마루교회 파송식 베데스다 힐링센터 오픈

온누리교회 성도 60여 명을 산마루교회로 파송하는 파송식이 지난 주일(19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3부 예배에서 열렸다. 그들은 교적(敎籍)을 온누리교회에서 산마루교회로 완전히 옮기거나 산마루교회에서 노숙인 사역, 예배, 주일학교, 영성수련 등의 사역을 섬긴다.

이재훈 담임목사는 산마루교회로 파송되는 성도들에게 “신앙성장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격려했다.

한편 지난 주일 오후 5시에는 산마루교회의 오랜 숙원사업이던 노숙인을 위한 목욕빨래시설 ‘베데스다 힐링센터’ 오픈예배를 드렸다. 베데스다 힐링센터는 노숙인들이 씻고, 깨끗한 옷을 입고, 필라테스도 하고, 심리상담도 받으면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장(場)이다.

확대당회

일시: 12월 2일(토) 오전 6시
장소: 서빙고 두란노홀

‘더 멋진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실시

차세대 · NGO 더멋진세상 르완다에 교육시설 건립

차세대사역본부와 NGO 더멋진세상이 창조탐험대 프로젝트 ‘더 멋진 마을 만들기’를 실시하고 있다. ‘더 멋진 마을 만들기’는 차세대들이 아프리카 르완다에 교육시설 ‘ECD(E

arly Childhood Development)센터’ 건립을 위한 저금통을 기부하는 프로젝트다. 온누리교회 국내 10개 캠퍼스 차세대 ‘예수님의꿈아이’와 ‘꿈이자라는땅’ 영역 학생들과 그 가

족들이 참여하고 있다. 차세대사역 본부는 지난 9월 17일 나눠준 ECD 센터 건립을 위한 저금통을 지난 주일(19일)부터 회수하고 있다. 현재까지 저금통은 2,732개, 23,363,650원

(24일 기준)이 모아졌다.

NGO 더멋진세상 김창욱 사무총장은 “차세대들이 기부한 저금통을 보면서 국경을 넘어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진심 어린 마음이 느껴져서 큰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NGO 더멋진세상은 2018년 2월 19일부터 27일까지 차세대 소년부(5-6학년)와 함께 아프리카 르완다 이웃리치를 계획하고 있다.

People

만나고 싶었습니다

대학시절 불교학생회 회장을 할 정도로 불교에 심취해 있던 사람이 예수 전도의 달인으로 거듭났다. 남양주 온누리교회 석재연 성도의 이야기다. 그녀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독실한 불교신자였다.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의 손을 잡고 절에 다녔고, 대학생 시절에는 전국의 이름난 사찰들을 모조리 찾아다녔다. 그런 그녀가 삶의 문제로 신음하다가 진짜 행복과 진리인 예수를 만났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불교학생회 회장에서 전도의 달인으로!

남양주 온누리교회 석재연 성도가 만난 하나님



석재연 성도가 평소 노방전도를 하던 거리에서 전도용품을 들고 웃고 있다.

석재연 성도의 어머니는 독실한 불교신자였다. 자연스레 어린시절부터 어머니를 따라 절에 다녔다. 석재연 성도가 대학생 시절에는 불교학생회실에 불상을 모셔놓고 시간이 날 때마다 찾아가 빌었다.

“정말 많은걸 빌었어요. 마음이 편해지기를 빌었고, 착하게 살게 해달라고도 빌었어요.”

그녀는 남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는 바람이 강했다. 일종의 ‘착한아이 콤플렉스’가 있었다. 그녀는 방학이면 절에 들어가 스님들과 똑같이 생활하며 수행했다. 스님들과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밥을 먹었다. 9박10일씩 절에서 생활하면서도 불편함을 전혀 느끼지 못할 정도로 불교에 심취해 있었다. 밤새도록 1~3천배를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세상의 근심 걱정이 사라졌다.

“절에서 10일씩 수행할 당시에는 그것 자체 만으로도 좋았어요. 한번 수행을 하고 오면 한 달은 마음이 차분하고 평화로웠거든요.”

그렇게 독실한 불교신자였던 그녀가 예수를 믿게 될 줄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내 힘’에서 ‘예수님 힘’으로

석재연 성도는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에 예수를 만났다. 당시 그녀의 삶은 말쑥한 구석

을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힘이 들고 괴로웠다. 인생에 대한 본질적이 고민이었다.

“그때가 15년 전이었어요.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가정생활도 편하지 않고, 좋은 아내, 좋은 엄마로 살고 싶었는데 그 소망이 거의 매일 물거품이 되더라고요.”

좋은 사람으로 사는 것도 한계가 있었다.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려고 꽃꽂이도 해보고, 부모교육도 받아봤지만 늘 제자리걸음이었다. 심리학 공부도 하면서 나름대로 해결책을 세워봤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결국 그녀가 기댈 곳은 늘 그랬던 것처럼 불상 앞이었다. 사는 게 너무 힘이 들 때마다 서울 시내에 있는 절을 찾아가 공양을 드렸다.

“날마다 ‘마음이 왜 잡히지 않을까’를 고민하면서 경내를 수없이 돌았지만 도저히 답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토록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했던 삶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실마리는 전혀 뜻하지 않은 곳에 있었다. 절도 아니었고 심리학도 아니었다. 우연히 읽은 어느 책의 한 문장에 그 해답이 적혀 있었다.

“시계가 고장 났을 때 내가 열어 고치려고 만지면 더 망가진다. 가정을 세우는 것도 내 힘으로 하려 하면 안 되고 가정을 만드신 분에게 맡겨야 한다.”

그 책은 시아주버님이 주신 기독교 서적이었다. 가정을 만드신 분에게 맡겨야 한다는 한 문장이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지금까지는 내 힘과 노력으로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했지 가정을 만든 분이 따로 있다는 상상조차 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몇 권의 기독교 서적을 더 읽었고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다.

“마침 이웃집 아주머니가 교회에 다니셨어요. 그 아주머니를 찾아가서 교회에 가고 싶다면 좀 데려가 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렇게 교회에 가서 찬양을 듣기만 했는데도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때 그 감동을 잊지 못해서 몇 차례 교회에 갔지만 그 이상은 없었다. 찬양과 예배에서 느껴지는 벅찬 감동 너머의 무엇인가가 분명 있을 것 같은데 손에 잡히는 듯 하면서 잡히지 않았다.

“저는 정말 예수님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인지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고요. 그때 친구가 저에게 양육자 한 분을 소개해 줬어요.”

그 양육자를 만나고 변화가 시작됐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이 얼마나 재미있는지를 깨닫게 됐다. 예수님이 역사 속 실존 인물이라는 것과 사역, 부활, 제자들의 행적에 대해 하나씩 알아가면서 그녀의 삶의 태도가 바뀌었다. 자기 힘으로 살던 인생에서 예수님의 힘으로 사는 삶으로 변화되었다.

“예수님을 만나고 진정으로 자유로워졌어요. 제 안에 선한 것은 하나도 없더라고요(롬 7:18-20)는 말씀을 읽는데 막혔던 가슴이 뻥 뚫리더라고요. 그 뒤로는 누군가에게 더 이상 착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석재연 성도는 예수님을 늦게 만난 것이 얼마나 아쉽고 서운했는지 모른다. 대학시절 자신에게 예수님을 전해주지 않은 크리스천 친구들이 얼마일 정도였다. 그 때문인지 그녀는 10여년이 넘게 매주 1회씩 노방전도를 하고 있다. 남양주 온누리교회 인근 상가와 학교가 그녀의 전도장소다. 버스를 타고 오갈 때도 복음을 전하고 있다.

한번은 남양주 온누리교회 인근 상가에서 대학시절 불교학생회 활동을 함께 했던 후배를 만났다. 정말 오랜만에 만난 후배에게 그녀는 “나 예수님 만났잖아”라고 인사했다. 그 후배를 6개월 동안 찾아가 전도한 끝에 그 후배도 예수님을 만났다. 지금 그 후배는 석재연 성도와 함께 남양주 온누리교회에 출석하고 있다. 석재연 성도가 학교 앞에서 전도한 일이 계기가 되어서 남양주 온누리교회에 전도팀

이 생기기도 했다.

드디어 어머니도 예수를 만나다

전도의 달인이라고 불릴 만큼 전도를 열심히 했지만 그녀도 15년 동안 전도에 실패한 대상자가 있다. 바로 어머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독실한 불교신자였다. 몇 번이나 어머니께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라는 말을 꺼내지도 못했다. 어머니와 석재연 성도 사이에 커다란 벽이 있는 것 같았다. 종교에 있어서 늘 완고한 어머니가 밋고, 답답했고, 때로는 창피할 때가 있었다. 그렇다고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번은 용기를 내서 복음을 전했다.

“전도를 나가는데 엄마에게 연습해도 되냐며 5분 전도를 했어요. 이야기를 잘 들으시기에 마음의 문이 열렸나 싶었는데 ‘나를 위해서는 절대 기도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부모초청 전도집회 ‘행복드림 콘서트’에 어머니를 초청했다. 그 전도집회에서 전도대상자 70%가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녀의 어머니는 ‘식사가 좀 그렇더라’는 말씀뿐이었다. 그러던 지난 11월 1일 남양주 온누리교회 여성사역에서 가을맞이 전도집회를 개최했다. 혹시 하는 마음에 어머니께 초대장을 전하러 갔는데 마침 놀러 오신 어머니 친구들까지 전도집회에 참석하기로 했다. 석재연 성도는 어머니를 초대해 놓고 기도도 전도집회를 준비하고 있었다. 마침 평소 서로를 오해해서 어색했던 한 성도와 우연히 마주쳤다. 그냥 지나치려는데 그 성도가 먼저 사과를 하며 석재연 성도를 뜨겁게 안아줬다. 그 순간 감동이 몰려왔다.

“그 순간 어머니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못했던 이유는 어머니가 아니라 저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전도집회 당일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백진주 교수의 간증과 함께 복음이 전해졌고,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싶은 참석자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렇게 완고하게 복음을 밀어내던 석재연 성도의 어머니도 자리에서 일어나 영접기도를 했다. 석재연 성도가 가족 전도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다.

“가족 전도는 정말 어려워요. 교회 다니는 제가 잘살고 좋은 모습 보여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제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예수님께 맡기는 순간 전도가 되더라고요.”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인생은 전쟁입니다. 생존경쟁이 아니라 영적전쟁이라는 뜻입니다. 인생은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일어나는 영적전쟁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적은 어떤 사람들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악한 영적 세력입니다. 우리가 원수로 여기고 있는 누군가가 진짜 원수가 아닙니다. 진짜 원수는 뒤에 숨어서 사람들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엡 6:12).

성경은 이 세상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입니다. 그들은 전능하지 않지만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나 권력이라고 말할 정도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악한 영들이 문제의 근원입니다. 열이 나면 그 열의 근원을 찾아야 열이 내립니다. 해열제만 계속 사용하면 문제가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증상만 치료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의 근원을 볼 수 있어야 하고, 그 근원을 치료해야 합니다.

우리의 원수는 마귀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사람을 찾습니다.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의 형제들도 세상에서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8-9절).

우리의 원수는 마귀입니다. 우리는 마귀와 맞서야 합니다. 우리는 마귀에 대해서 두 가지 잘못된 태도로 접근하기 쉽습니다. 첫째, 마귀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완전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실을 외면하고 그저 기분 좋게 살려는 태도일 뿐입니다. 우리 자신과 사회를 정직하게 살펴보면 보이지 않는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끔찍한 살인사건, 이유 없이 많은 사람들을 총으로 난사해 죽이는 일, 존경받던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 독일 나치의 엄청난 학살 등 사람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모습들을 정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 마귀의 존재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둘째, 그렇다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마귀와 관련된 것

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감기만 걸려도 ‘감기마귀에 걸렸다’는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모든 일들이 마귀와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나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전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모든 일들을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따라옵니다. 예를 들어서 감기에 걸린 사람이 감기에 대해 불평하고, 분노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한 마음의 틈을 타는 것이지, 감기 자체를 마귀가 주관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마음과 태도로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마귀와 가까워질 수도 있고 전혀 상관없이 지낼 수도 있습니다. 마귀는 전능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든 일을 마귀와 연관시킬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위험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사람을 찾습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실체에 대한 아주 무서운 경고입니다. 마귀도 사자처럼 조용히 먹잇감을 찾아다니다가 먹잇감을 발견하면 엄청난 울음으로 먹잇감을 두려워하게 하고 삼키는 것처럼 사냥감을 찾아다닙니다.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라는 말은 우리에게 마귀의 실체를 알려주는 표현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공격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격에는 시늉이 없습니다. 기쁠 때는 기쁨으로, 슬플 때는 슬픔으로 누구든지 삼키려고 합니다. 소수의 몇 사람에게만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예수님까지 유혹했습니다. 어디든지 마귀의 유혹과 공격이 찾아옵니다. 깊은 산 속 수도원으로 들어간다고 해도 마귀의 공격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담을 쌓아도 그 담이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합니다. 마귀는 부지런히 유혹하고 찾아다닙니다. 마귀는 암전히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마귀는 휴식과 안식이 없는 영입니다. 결코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한 가지 방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다른 방법으로 다양하게 공격합니다.

마귀는 비겁합니다. 치사합니다. 우리의 약점을 이용해서 유혹합니다. 마귀는 정정당당하게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병이 찾아오듯이 영적 면역력이 떨어져 있거나 공동체에서 고립되어 있을 때 혹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 마귀가 공격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기 가장 좋은 때는 우리가 가장 약해져 있을 때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에 화살을 쏩니다. 어떤 사람은 유다처럼 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삼손처럼 이성 약하고, 어떤 사람은 노아처럼 술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에 약하고, 칭찬에 약합니다. 자신이 어떤 부분에서 약한지를 깨닫고, 인정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마귀의 유혹과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마귀와 맞서 싸워 승리할 권세

마귀는 처음부터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멀리 있는 사자가 “지금부터 너를 잡으러 간다”고 알리며 다가옴니다. 아닙니다. 조용히 접근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들이닥칩니다. 처음부터 엄청난 유혹을 하지 않습니다. 유혹이 유혹인 줄 모르게 점진적으로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귀가 아무리 우는 사자처럼 삼킬 사람을 찾아다닌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마귀와 대적하고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마귀와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없다면 예수님이 대적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를 함께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거슬러 대적하는 조문들이 담긴 채무 증서를 제거하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가운데서 없애 버리셨습니다. 또한 십자가로 권력들과 권세들을 무장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공개적인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골 2:14-15).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마귀의 모든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승리하셨기에 그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를 공격하심으로 마귀의 공격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첫째, 채무증서를 제거하셨습니다. 그 채무증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그릇되게 행했기 때문에 죄 값을 치러야 한다는 증서입니다. 하나님 앞에 처벌 받고 진노를 받아 마땅한 죄의 빛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증서입니다. 우리가 지불해야 할 죄의 대가에 대한 증서를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채무증서를 제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갚아야 할 빛을 다 갚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는 “다 이루었다”입니다. 이 말씀은 “다 지불했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 채무를 무시하거나 덮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채무증서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갚으셨기에 채무증서가 제거된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이 권력들과 권세들을 무장해제시키셨습니다. 마귀는 예수님도 공격했습니다. 불의한 권력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십자

가로 내몰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습니다. 마귀는 자신이 승리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마귀는 부활과 십자가의 희생을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사랑으로 인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귀는 감히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마귀의 머릿속에는 사랑, 희생, 헌신, 대속이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공격함으로 자기 자신이 무너졌습니다. 마귀는 십자가를 공격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로 마귀를 무력화시켰습니다. 마귀가 쓸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마귀는 죽음으로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죽음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언제 틈을 타기 시작합니까. 죽음의 순간에 마귀의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고 자기가 승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셨고,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마귀는 자신의 공격으로 인해 스스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쓸 수 있는 무기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마귀도 이 사실을 압니다. 그런데 아직도 자신에게 권세가 있는 것처럼 계속 속이고 다니는 것입니다.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마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결코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승리하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승리를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마귀의 먹이 ‘교만’과 ‘근심’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여러분의 발아래서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롬 16:20).

사탄은 우리 발아래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태도입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까. 교만한 마음으로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이용당하고 해로운 일을 하게 됩니다. 마귀는 본질적으로 교만합니다. 마귀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교만함을 넘어서 수 없습니다. 또 마귀는 교만한 자를 협력자로 사용합니다. 따라서 교만한 자는 본질적으로 마귀 편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13면에 계속)

기획

■■가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1. 부모

부모가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준비되지 않은 임신과 출산, 자녀와 부모 모두에게 상처
기도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진정한 부모 준비

알코올 중독자로 가구를 내다팔아 술을 마시고 술 마실 돈이 없으면 아내를 구타하는 남편이 있었다. 그의 아내는 폐결핵에 걸려 자신의 몸 하나 가누기 힘들 정도였다. 그런 아내가 임신을 했다. 어느 교수가 학생들에게 물었다. “이 태아를 어떻게 해야 좋을까?” 한 학생이 대답했다. “그 아이는 낳으면 안 됩니다!” 그러자 그 교수가 말했다. “자네는 방금 베토벤을 죽였네.”

부모가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해서도 안 된다. 거처적거리거나 경제적 상황이 되지 않아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키운 생명이 훗날 베토벤이 될 수 있다. 이 세상의 모든 부모는 자녀를 귀중하고 소중하다고 여겨야 한다. 이것이 부모가 되는 가장 중요한 준비이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막대한 책임과 의무가 동반된다. 그만큼 막중한 일이기 때문이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아이가 집안을 어지르고 보기 싫어서 목줄에 묶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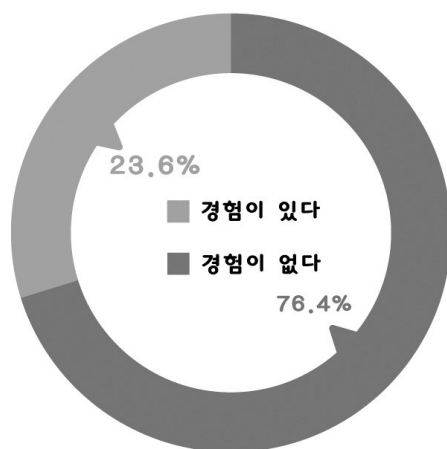
지난 7월,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3살짜리 아이가 개목줄에 묶인 채 질식사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일명 ‘개목줄 현준이’ 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친부(22세)와 계모(22세)의 학대와 구타, 방임이 원인이었다. 지난 11월 9일 법원은 이 극악무도한 부모에게 15년형을 선고했다. 도대체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난 것일까? 전문가들의 진단은 한결같다. 준비되지 않은 부모가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면서 낳은 비극이라는 것이다. 현준이가 태어났을 때 부모의 나이는 고작 19세였다. 제대로 자립하지 못한 미성년자들이 부모가 되다보니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를 전혀 몰랐던 거다. 비단 이 사건만이 아니다.

부모 준비가 되지 못한 사람들이 부모가 되면서 발생한 끔찍한 사건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갓 태어난 아이를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리거나 부양능력이 없어 아이를 방치하는 사건도 있었다. 한 여성은 낳은 지 3일밖에 안된 신생아를 미혼모 시설에 맡겨놓고 “집에 가서 강아지 밥을 주고 오겠다”고 한 뒤 돌아오지 않았고,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낳은 아이가 숨지자 8일 동안 욕실과 소화전에 숨긴 여고생도 있었다. 임신한 사실을 부모에게 들을까봐 아이의 입을 화장지로 막아 질식사시킨 뒤 비닐봉지에 담아 거실 창문 밖으로 던진 여중생도 있었다. 버스정류장 쓰레기통과 모텔, 공중화장실, 심지어 택시 뒷좌석에 아기를 버린 사건도 있었다.

더 큰 문제는 범행을 저지른 사람들 대부분이 성의식 체계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10대들이라는 점이다. 그들은 원치 않은 임신과 출산으로 태어난 아기 때문에 자신들의 삶이 뒤틀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여 아기를 버릴 수밖에 없다고 항변한다. 이와 같은 미성숙한 부모의 치기 어린 행동은 나이와 국적을 가리지 않는다.

지난 6월에는 ‘부산 냉장고 영아 시신유기

부모교육에 참여해 본 경험이 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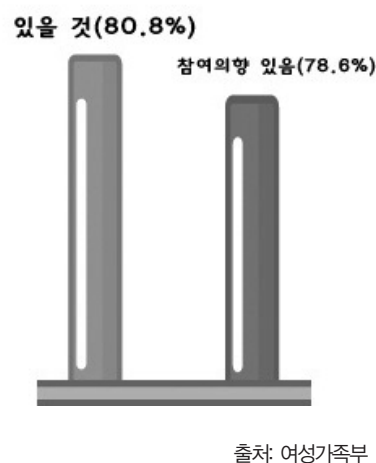
사건’이 발생해서 세상을 경악하게 했다. 이 사건은 네일샵을 운영하던 엄마(34세)가 2014년과 2016년 혼자 출산한 후 아이가 숨지자 냉동실에 넣어 유기한 사건이다. 그녀는 남자친구와 동거를 하게 되면서 영아 시신 2구가 든 검은 비닐봉지도 함께 동거남의 집 냉장고로 옮겨 보관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동거남의 여동생이 방문했다가 비닐봉지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더라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지난 9월에는 영국의 한 남성이 출산을 코앞에 둔 만삭 여자친구(30세)에게 불을 지르는 만행을 저질렀다. 그 이유는 어처구니없게도 “아직 아빠가 될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이었다.

그들이 이런 끔찍한 일을 벌이는 이유는 오직 하나다. 부모가 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기도하는 부모 vs 기도하지 않는 부모

부모가 될 준비를 잘 한 대표적인 성경인물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이다. 한나는 다른 어떤 것보다 기도로 부모가 될 준비를 했다. 기

부모교육의 효과성 및 참여의향?



도로 사무엘을 낳았고, 기도로 사무엘을 양육했다. 사무엘이 세상에 나올 수 있었고, 훌륭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바탕에는 어머니 한나의 끊임없는 기도가 있었다.

반면 엘리 제사장은 자녀를 기도로 기르지 않았다. 엘리는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술 취했다고 생각하고 그녀에게 술을 끊으라고 권유를 했을 정도로 기도의 영성이 빈약했다. 결국 엘리의 두 아들들이 불량하게 되고 저주를 받아 죽임을 받게 된 것도 엘리의 기도 부재가 원인이다.

기도하는 부모와 기도하지 않는 부모는 이렇게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 부모가 되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해야 한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자녀에 대한 책임과 헌신을 동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기에 준비가 필요하고, 부모가 되는 것을 공부해야 한다. 서점에 수많은 육아지침서들이 가득하다. 그 책에 나온 방법대로 키우면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세상은 각종 방법론을 말하지만 성경은 자녀 양육에 대한 지침이 단호하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잠 1:7).

부모가 되는 첫 번째 덕목은 부모가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부모의 신앙을 자녀에게 대물림할 줄 알아야 한다. 자녀에게 믿음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일깨워줘야 한다(딤후 1:5). 디모데가 자기를 향한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신뢰를 어머니와 외할머니로부터 배운 것처럼 부모는 자녀들에게 그들이 창조주와 어떤 관계인지를 깨우치도록 도와야 한다.

무엇보다 부모가 되려면 생명의 소중함을 알아야 한다.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창 33:5)이요, 부모에게 맡겨진 기업(시 127:3)이요, 하나님께 속한(창 17:7)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이다.

우리는 평생을 공부한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공부뿐만 아니라 졸업 후에도 진로와 취업을 위해 고민하고 치열하게 공부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준비인 부모가 되는 공부는 상대적으로 덜 하고 있다. 준비 없이 이뤄진 임신과 출산은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다.

바람직한 크리스천 부모가 되고 싶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해야 한다. 자녀는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고, 자녀들에게 신앙을 대물림해야 한다.

성경적 부모준비 Tip!

1. 기도로 출생하고 기도로 양육하라 (삼상 1:27).
2.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잊지 말라 (창 33:5).
3.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창 17:7).
4. 조건 없는 사랑으로 양육하라 (요일 4:10).
5. 마땅히 행할 바를 스스로 하게 하라 (잠 22:6).

부모 될 준비 이렇게 하라!

성의 정결함, 생명의 소중함, 부모의 청지기 역할



강미향 목사
(헬로맘스쿨 담당)

무분별한 혼전 성관계, 쾌락만 좇는 세상적인 가치관이 성을 왜곡하고 있다. 그것이 원하지 않은 임신, 준비되지 않은 출산으로 이어지면서 부모가 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부모가 된다. 그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준비 안 된 부모들에 의해서 가슴 아픈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다. 개목줄 현준이 사건도 마찬가지다. 미숙한 부모의 철없는 행동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끔찍한 범죄이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나님은 분명 성(性)을 통해 부모가 되는 기쁨과 감격, 부부 간 친밀함,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세우셨는데 세상적 가치관이 성의 가치를 무너뜨리고 있다. 성에 대한 성경적 가치관,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 생명의 존귀함을 깨달아야 한다. 부모 될 준비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성(性)은 하나님의 선물

성(性)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성은 세상이 말하는 쾌락과 욕구분출의 도구로 주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성을 선물로 주신 이유는 세 가지이다.

첫째, 성을 통해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기 위해서이고, 둘째, 부부 간 육체적 기쁨과 친밀감을 누리라고 주셨으며, 셋째, 성을 통해 하나님이 정해주신 부부임을 알리는 인지심이다. 즉, 하나님은 성을 오직 부부만 나눌 수 있도록 선물로 주셨다. 그런데 세상은 성을 쾌락과 정욕을 강조하는 도구이자 상업적으로 변질시키고 있다.

성은 영적으로도 깊은 관련이 있다. 십계명을 보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다. 이 계명이 부부관계에도 적용된다. 부부 외에 다른 사람이 끼어드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신앙적으로는 나와 하나님이 하나요, 인간관계에서는 부부(남편과 아내)가 하나라는 뜻이다. 그렇기에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관계(창 2:25)이다. 무릇 성경적인 부부는 마음이 벌거벗어도, 몸이 벌거벗어도 서로에게 부끄럽지 않고 지지와 위로가 되는 관계이다.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의한 성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 성경적 성교육이 필요한 이유다. 그러나 돈과 세속이 성을 흐트러버렸다. 성이 지저분하고 더럽고 동물적이라고 느껴지는 것은 상업적으로 왜곡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행 11:9)고 하신 것처럼 성은 본디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우리 몸은 성전(聖殿, 신성한 전당)이므로 정결하게 다뤄야 한다. 그런데 세상은 성욕을 분



“자녀를 잘 양육하고 키워내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자아실현이요 최고의 축복이다”

출하고 해소하도록 만들고 있다. 특히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폐해가 심각하다. 청소년들이 무차별적으로 자극적인 음란물에 노출되고 있다. 성에 대한 성경적 개념이 바로잡히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왜곡된 성의식이 자리 잡으면 무분별한 성관계로 이어진다. 사랑이라는 말에 속아 쉽게 몸을 허락한다. 결국 생각하지 못한 임신으로 이어지고 어찌할 바 모르다가 불법낙태를 하거나 영아 유기를 선택한다. 악순환의 연속인 셈이다.

성경적 성의식이 왜곡된 것은 어른들도 마찬가지다. 한국은 포르노산업 매출이 상당히 높은 국가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참으로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부모가 되려면 성에 대한 올바른 개념부터 정립해야 한다.

주인은 하나님, 부모는 청지기

생물 시간에 우리는 여자의 난자와 남자의 정자가 만나 수정해 생명체가 탄생한다고 배운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의 정의는 단순한 생물학적 반응이 아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시 139:13).

하나님은 우리를 모태에서부터 지으셨다. 이는 무슨 뜻일까? 인간의 오장육부뿐만 아니라 생각과 마음까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이다. 부모는 자녀(생명)가 이 세상에 올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이다. 그렇기에 우리의 진정한 부모는 하나님이다.

생명은 그 자체만으로 존귀한 존재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창 1:27).

하나님은 영이시다. 형상이란 단순히 외양이나 모습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생각과 마음과 뜻을 주셨다. 전인격적인 이미지로 인간을 만드신 것이다. 자녀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한 전인격적인 존재다. 하나님이 육신의 부모를 통해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다.

자녀들을 바라볼 때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이므로 함부로 하거나 부모 마음대로 다루서는 안 된다. 부모는 자녀가 이 세상에 오게 한 통로에 불과하다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 자녀의 본 주인은 하나님이고, 부모는 청지기일 뿐이다.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자녀 존재의 의미에 대해 알아야 한다.

세상은 성과 생명을 경시한다. 성을 타락시켰고,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전락시켜버렸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고, 자기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개목줄 현준이 사건 같은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지도 모른다. 자기 것이기 때문에 말 안 듣는다고 때리고, 버린다. 자녀의 개성과 적성은 생각하지 않고 부모의 욕심만 들이대고 있다. 크리스천 부모들도 예외가 아니다. 이런 현상들을 보고 있노라면 말로 다 할 수 없을 하나님의 극심한 아픔이 느껴진다. 생명의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존귀한 존재임을 안다면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다.

부모가 되는 준비는 다른데 있는 게 아니다. 성경적인 성의식과 교육, 성경적 자녀관과 가치관을 재정립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된다. 성의 정결함, 생명의 소중함, 부모의 청지기적

역할관을 깨달아야 한다.

저출산이 나라 존립의 중차대한 문제로 떠올랐다.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부었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만혼 등의 이유로 자녀를 원해도 가질 수 없는 난임부부가 늘어나고 있다. 한국은 세계적인 경제대국임에도 고아수출국이라는 오명을 견어내지 못하고 있다. 성과 생명의 경시로 많은 아이들이 버려지거나 죽어가는 대한민국의 민낯이다. 이런 점에서 입양이 하나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버림받은 아이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안다면 모른 척 할 수 없는 노릇이다. 국가와 사회, 가정에서 고아들을 돌봐야 하고, 교회도 그들을 품고 도와야 한다.

최고의 자아실현, 최고의 축복

많은 여성들이 자아실현과 자녀양육을 놓고 고민한다. 한국 사회에서는 여성이 경력을 유지하면서 부모의 역할까지 병행하는 것이 쉽지 않다. 오죽하면 경단녀(경력단절녀), 유리천장(여성의 고위직 진출을 막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라는 말들이 나왔을까. 뿐만 아니라 자녀를 키우는 데는 많은 돈이 들어간다. 자녀 1명을 대학졸업까지 키우는데 무려 3억 897만 원(2013년 기준)이 들어간다고 한다.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부모들이 아이 낳기를 기피한다. 그러나 필자는 단언할 수 있다. 자아실현의 최고봉은 자녀양육이다. 자녀는 돈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사랑으로 키운다. 다음세대를 이어갈 차세대를 키우는 것만큼 좋고 중요한 자아실현은 없다.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 이 땅에 보내신 자녀를 잘 양육해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키워내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자아실현이요 최고의 축복이다.

헬로맘스쿨에 온 많은 엄마들이 처음에는 자녀를 빨리 낳고 싶어 한다. 이유는 단순히 빨리 아이를 낳고 멋도 내고 싶고, 일하려고 싶기 때문이다. 그러나 헬로맘스쿨을 들으면서 마음이 바뀐다. 자신들이 소중한 것을 놓치고 있었다는 걸 깨닫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아무리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니 아이를 낳으라고 외쳐봤자 실효성이 없다. 이는 수많은 돈을 쏟아 부었지만 결과가 없는 현 상황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부모들의 생각이 변해야 한다. 생명을 바라보는 관점, 올바른 성의식,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과 자녀를 생각하고 대한다면 함부로 할 수 없고, 내 욕심대로 자녀를 휘둘러 줄 수 없다.

부모가 되는 준비는 수백만원짜리 유모차를 사는 것도, 명품 아기 옷을 사는 것도, 동화책 전집을 사서 책장을 매우는 것도, 좋은 학원과 과외 선생을 물색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과 자녀를 바라보는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야말로 부모가 되는 가장 중요한 준비이다.

르포 안성농장 탐방기

아프리카 신학생 4인방, 적정기술과 자연농법을 배우다

아프리카에서 유학 온 신학생 4인방(총신대학교)이 지난 11월 4일 안성농장을 방문했다. 적정기술과 자연농법을 배우기 위해서다. 박대호 장로와 양재 적정기술팀이 아프리카 신학생 4인방에게 로켓스토브, 정수기술, 태양광 전지 제작 등의 적정기술과 자연농법을 소개했다. 적정기술은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제작이 쉽지만 그 기능은 탁월하다. 자연농법은 비용과 특별한 기계나 기술 없이도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아프리카 신학생 4인방은 고향에 적정기술과 자연농법을 반드시 전수하겠다고며 배움 열정을 불태웠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안성농장에서 로켓스토브를 만든 모기사가즈, 데니스, 리빙스톤, 나나(좌측부터).

안성농장을 찾은 아프리카에서 유학 온 신학생 4인방은 리빙스톤(카메룬), 데니스(우간다), 나나(르완다), 모기사가즈(우간다)이다. 그들은 안성농장에 방문하기 전날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양재 적정기술팀 황희주 자매가 “아프리카 사람들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기술을 배우는 기회”라고 한 말이 잊히지 않아서다. 우간다에서 온 데니스는 그 기대가 더 남달랐다.

“한국의 농업기술과 가전제품들을 보면 부럽기도 하고 솔직히 가슴이 아파요. 그 좋은 기술을 고향 사람들에게 전해 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거든요. 문제는 한국의 가전제품을 가져가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연료도 없고, 고장 나면 수리도 못하고요.”

르완다에서 온 나나도 한마디 거들었다.

“르완다에서는 나무를 얼마나 많이 태웠으면 큰 나무를 베는 것이 금지되어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안성농장에 가면 작은 나뭇가지만 있어도 요리를 할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준다고 하더라고요. 기대가 클 수밖에 없어요.”

적정기술 로켓스토브 만들기

아프리카 신학생 4인방이 안성농장에서 배운 첫 번째 적정기술은 ‘로켓스토브’다. 로켓스토브는 강통 3개를 이용해서 만드는 스토브(난로)인데 아주 작은 나뭇가지만 있어도 요리를 할 수 있는 강력한 화력을 낸다. 아프리카 신학생 4인방이 직접 로켓스토브를 만들어서 요리를 해보기로 했다. 박대호 장로가 미리 만든 로켓스토브를 보여주면서 어디에서 어떻게 쓰이는 기술인지를 설명했다.

“아프리카는 대부분 화목연료를 사용해요. 커다란 돌을 모아 화덕을 만들고 위에 냄비를 올려서 요리를 하죠. 문제는 열효율이 좋지 않아서 나무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많은 나무가 연소되면서 발생하는 연기 때문에 호

흡기 질환이 생깁니다. 로켓스토브는 적은 양의 나무만으로 요리를 할 수 있어요. 나무들이 완전히 연소되면서 연기도 발생하지 않아요.”

로켓스토브를 만드는 법은 아주 간단하다. 첫 번째 강통 안에 두 번째 강통을 넣고, 나머지 세 번째 강통은 두 강통을 관통한다. 첫 번째 강통과 두 번째 강통 사이에 자갈, 모래, 진흙을 넣어 채우면 로켓스토브가 완성된다. 그런데 작은 문제가 있었다. 아프리카 신학생 4인방이 로켓스토브 만드는 기술을 익히는데 시간이 걸렸다. 그들 나름대로 열심히 강통에 구멍 뚫고, 자르고, 끼워봤지만 로켓스토브가 쉽게 완성되지 않았다. 우간다에서 온 모기사가즈가 멋쩍은 듯 말했다.

“저희가 공구를 많이 사용해보지 않아서 잘못 만드는 거예요. 고향 사람들은 저희보다 손재주가 좋아서 금방 만들고 사용할 수 있어요.”

박대호 장로가 도우미로 나서자 아프리카 신학생 4인방도 로켓스토브를 완성할 수 있었다. 박대호 장로가 설명했던 것처럼 로켓스토브에는 작은 나뭇가지 몇 개만 타고 있을 뿐인데 물이 펄펄 끓었고, 연기가 나지 않았다. 나나는 감탄하면서 로켓스토브 제작과정과 로켓스토브를 이용해서 요리하는 모습을 휴대폰에 담기 바빴다.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을 실시간으로 현지지역자에게 전송하고 있어요. 현지지역자에게 전송하면 그 지역자가 적어도 100여 명의 주민들에게 로켓스토브 만드는 기술을 가르쳐거든요.”

양재 적정기술팀 독고석 성도는 정수기술을 소개했다. 아프리카에서는 깨끗한 식수 확보가 빼놓을 수 없는 문제 중 하나다.

적정기술로 만든 수제 정수기의 기능 또한 탁월했다. 수제 정수기는 커다란 플라스틱 통에 물이 나오는 구멍을 뚫고, 자갈, 모래, 가는 모래를 잘 씻어 차례로 쌓으면 된다. 깨끗하게 물에 씻은 모래와 자갈만 있으면 완성되는 제

작방법도 놀랍지만 그 기능이 더 놀라웠다. 모래만 잘 씻어 주면 거의 반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별도의 약품 처리 없이 마셔도 전혀 탈이 나지 않는 깨끗한 물이 정수되어 나왔다. 박테리아까지 100% 걸러낸다고 한다.

모기사가즈는 수인성 질환과 전염병이 끊이지 않는 아프리카에서는 정수기술이 꼭 필요한 기술이라고 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대부분 우물을 파서 물을 얻는데 한 시간은 줄을 서야 하고 그 물마저 끓여 먹어야 해요.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이 물을 잘못 마셔서 아픈 경우도 많고요.”

김동섭 성도는 태양광 전지를 소개했다. 태양광 전지는 이미 아프리카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기술이다. 그런데 정확한 사용법과 제품을 보는 눈이 부족해서 탈이 많다고 한다. 전기를 만드는 용량, 저장하는 용량, 변환해서 내보내는 용량이 다 균형이 맞아야 하는데, 잘 알지 못해서 제품의 수명이 짧아지거나, 잘못 만들어진 제품을 구입해서 돈만 날리는 경우가 많다. 태양광 에너지에는 데니스가 가장 큰 관심을 보였다.

“우간다에서 전기료가 너무 비쌌던데 공급도 잘 안 되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값비싼 태양열 제품을 사서 쓰는데 가짜들이 많고 고장도 잘나요. 이번에 태양열 전지의 원리를 배울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겨울에 고향에 가는데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이 기술을 꼭 알려 줄 거예요.”

자연, 미생물 이용한 자연농법

아프리카 신학생 4인방이 배운 두 번째 기술은 자연농법이다. 아프리카 신학생 4인방은 주민들 대부분이 농업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지역에서 왔다. 그만큼 농업기술에 대한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

자연농법은 화학비료와 농약 없이 농사를

짓는 방법이다. 화학비료 대신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지렁이, 미생물 등을 이용해서 작물을 재배한다. 누구든지 배우기만 하면 트랙터 같은 농기계, 농약과 화학비료가 없어도 작물을 키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기술과 자본이 부족한 아프리카 주민들도 자연농법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농사를 지을 수 있다. 생산성도 일반적인 농업방법과 비교했을 때 뒤떨어지지 않는다.

박대호 장로는 “농약 없이는 키울 수 없다고 알려진 고추를 농약 한 방울 없이 키우고 있고, 일반농업보다 오래 수확을 할 수 있어서 생산성도 높다”면서 자연농법의 장점을 소개했다. 실제로 자연농법으로 키운 파파야, 바나나, 감자, 카사바가 얼마나 크고 실한지 보고 있으면 웃음이 나올 정도였다. 평소 보던 농작물들과 비교해서 파파야는 주먹 하나 정도가 컸고, 바나나는 훨씬 많은 송이가 달려있었다. 자연농법으로 재배한 작물을 본 리빙스톤은 “자연농법이야 말로 아프리카에 꼭 전수해야겠다”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아프리카 신학생 4인방은 기회가 된다면 안성농장에 또 방문하고 싶다고 했다. 안성농장 탐방을 마치며 리빙스톤이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아프리카를 자주 방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방문할 기회가 있다면 아프리카에서 적정기술과 자연농업에 대한 교육을 꼭 해주세요. 아프리카에 꼭 필요한 기술들입니다.”

* 자연농법이란

무경운, 무비료, 무제초, 무농약 등 4대 원칙에 입각한 유기농업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자연생태계를 보전, 발전시키면서 안전한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방법이다. 기술과 자본이 부족한 제 3세계에서도 높은 생산성을 보장할 수 있는 농법이다. 온누리교회에서는 장기선교사들이 파송을 받기 전에 안성농장에서 자연농법에 대한 교육을 받게 하고 있다. 온누리교회 안성농장에서 자연농법에 대해 배울 수 있다.

* 적정기술이란

적정기술(Appropriate Technology)은 주로 개발도상국 지역의 문화적, 정치적, 환경적 면들을 고려하여 삶의 질 향상과 빈곤 퇴치 등을 위해 적용되는 기술이다.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자개발국에 적용된 적정기술은 물 부족, 질병, 빈곤, 문맹 등의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작은 것이 아름답다>, <소외된 90%를 위한 디자인>같은 전문서적을 참고하면 훨씬 많은 적정기술을 배울 수 있다. 온누리교회에서는 How Mission School과 양재 적정기술팀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문의: 안성농장 010-8152-0023
How Mission School 010-2696-1222
양재 적정기술팀 010-3769-1093

“사랑하는 이들에게 진짜 자유를”

204명 참가, 71명 예수 영접, 81명 긍정 반응

뜻밖했던 20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다. 사회에 때 묻지 않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꿈과 열정이 있었던 그 시절 말이다. IMF 여파로 큰 위기를 경험했지만 사랑하는 친구와 가족들, 동료들 덕분에 깨끗하게 버틸 수 있었던 참 좋은 시절이었다. 지난 11월 20일(월) 그 좋았던 시절 버팀목이 되어줬던 사랑하는 이들에게 영원한 꿈과 희망 예수님을 선물했다.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막 오른 40대를 위한 맞춤전도집회 ‘두 번째 스무 살’ 현장에 다녀왔다.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누가 40대를 세상일에 흔들리지 않는 불혹(不惑)이라고 했던가? 오늘날 40대는 불혹(不惑)이 아니라 유혹(誘惑)이다. 전쟁터 같은 직장생활에서 생존하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집에 돌아가면 따뜻한 위로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해야 하는 워킹맘들의 고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참 열심히 살아온 삶에 대한 회의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공존한다. 이 복잡한 요인들이 40대를 유혹상태로 빠뜨리고 있다. 어디 이뿐이라.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앞으로는 더 열심히 살아가야 할 길이 까마득하고, 건강만큼은 자신 있었는데 한두 군데 이상이 생기기 시작한다.

리서치기업 트렌드모니터에서 실시한 ‘외모 및 건강관리 관련 트렌드 평가’에 의하면 40대가 다른 세대에 비해 건강을 해롭게 하는 요인으로 경제적인 문제(33.6%)를 많이 꼽았다. 이처럼 40대는 사회에서도, 가정에서도, 건강 문제에서도 서서히 늙아가고 있는 시기다.

맞춤전도집회 ‘두 번째 스무 살’은 팍팍하게 살고 있는 40대만을 위한 자리였다. 이 시대 40대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참 자유이자 행복인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맞춤전도집회는 기대한 것 이상으로 열매가 풍성했다. 전도대상자 204명 중에서 71명(34.7%)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 81명(37.7%)이 교회와 예수님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겠다고 답했다. 참석자 72.4%가 교회와 예수님에 대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전도대상자 37명은 벌써 세례를 신청했다.

때마침 찾아온 기회

맞춤전도집회 게스트로 출연한 뮤지컬배우 이석준, 영화배우 추상미 부부의 간증이 같은 40대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석준, 추상미 부부는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온 삶에 대한



맞춤전도집회에 초대된 김성현, 김귀영 부부가 장미꽃을 들고 활짝 웃고 있다.

공허함을 느끼고 우울증을 겪었다”면서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하면서 건강염려증까지 걸렸었다”고 고백했다. 그들의 솔직한 고백이 40대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이재훈 담임목사는 치유와 회복을 위한 메시지를 전했다. 이 목사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자유인 것 같지만 진짜 자유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진리를 믿고 따르는 것”이라며 예수님을 소개했다.

조운예 성도는 여동생 조소진 자매(42세)를 전도했다. 조소진 자매의 삶은 풍광과 같았다. 올해는 유난히 더 심했다.

“동생에게 고등학생 아들이 있는데 아토피 피부염이 심해서 수혈을 받는 도중에 기절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동생이 남편과도 갈등이 있었는데 힘든 일이 한꺼번에 겹치니까 몹시 힘들어하더라고요.”

아픈 아들과 남편에 대한 서운함과 억울함이 한꺼번에 터진 조소진 자매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다. 남편과 사이가 나빠져서 잠시 파

로 살아야 될 정도로 심각했었다. 동생의 속상하고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은 언니는 몇 달 동안 동생과 동생 가정을 위해 눈물로 부르짖었다.

“동생을 전도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전도를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막막했어요.”

언니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은 이미 동생의 마음을 만지고 계셨다. 동생 지인이 매일 큐티와 설교 말씀을 보내주고 있었다. 추석 때 동생 집을 방문했는데 이미 동생의 마음이 많이 열려있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였다. 교회는 출석하지 않았다. 어떻게 하면 동생을 교회로 인도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는데 기회가 찾아왔다. 그 기회가 바로 40대를 위한 맞춤전도집회 ‘두 번째 스무 살’이다.

“40대를 위한 맞춤전도집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동생이 복음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했거든요. 저희 어

머니께서 행복드림콘서트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셨듯이 동생도 꼭 그렇게 되리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닫혔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심규혁, 우정현 부부는 지인 김성현, 김귀영 부부를 초대했다. 그들은 2년 전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에서 진행한 ‘부부학교’에서 만났다.

“그들이 사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서로를 즐겁게 섬기거든요. 그런데 막연한 미래와 죽음에 대한 허전함을 갖고 있더라고요.”

심규혁, 우정현 부부는 지인 부부에게 딱 한 가지가 없다는 것이 몹시 안타까웠다. 그 한 가지는 복음이다. 어떻게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때마침 교회에서 40대를 위한 맞춤전도집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신청했다.

“이때다 싶더라고요. 다행히 그분들이 우리의 초대에 흔쾌히 응해줬어요.”

심규혁, 우정현 부부는 전도대상자들이 닫힌 마음의 문을 활짝 열도록 집회 일주일 전부터 아침마다 금식기도를 했다.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다.

“맞춤전도집회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어찌나 떨렸는지 몰라요. 지인을 처음으로 전도하는 거라 그런지 설레기도 했고요. 전도집회를 준비하면서 그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 간절한 마음이 전도대상자에게 전달됐다. 맞춤전도집회가 끝난 뒤 만난 전도대상자들의 입가에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스무 살 시절로 돌아간 것 같더라고요. 신앙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보지 않았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교회와 예수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어요. 마음이 정말 따뜻해지고 행복했거든요.”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사랑하는 친구 기영이와 광진아!
처음으로 편지를 쓰니 쑥스럽구나. 대학 시절 많은 추억을 함께 나누고 희로애락을 느끼며 보낸 게 엊그제 같은데 그 시절이 벌써 30년 가까이 되어가네. 나이가 들수록 세월이 참 빠르다는 걸 실감하게 되는 것 같아. 이제 내일모레면 우리 50대야. 인생의 전반전을 마치고 하프타임을 보낼 나이잖아. 남은 인생의 후반전을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너희에게 소개하고 싶어서 교회로 초대했어. 초대에 응해줘서 정말 고마워.

결혼하고, 또 각자의 삶을 열심히 사느라 예전처럼 자주 보지 못하지만 너희들을 늘 생각하고 있었어. 사실 나에게도 마음의 짐이 하나 있었어. 인생에서 가장 값진 선물을 나만 알고 너희들에게 전해주지 않은 게 있거든. 인생의 후반전에는 내가 만난 너무 좋은 예수님을 너희들도 꼭 만나서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누렸으면 좋겠어. 친구들아, 우리 함께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서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며 우정도 멋지게 이어가자.

/ 김상석 성도

사랑하는 동생에게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동생 소진아!
타지에서 생활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 텐데도 잘 버티워서 정말 고맙구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로 들어선 너를 진심으로 축복해. 오늘 함께 하는 모든 시간이 즐거웠기를 바라.

참 감사하다. 사실 올해 초 엄마 아빠가 온누리교회 전도집회에 오셨었거든. 너를 초대한 바로 이곳에서 엄마가 교회를 다니겠다고 결심했어. 이번 전도집회를 통해서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롬 15:5-6).

이 말씀이 꼭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아. 요즘은 사랑하는 내 동생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언니가 너를 정말 많이 사랑하는거 알지? 진심으로 축복해.

/ 조운예 성도

태국CGNTV 개국

CGNTV가 오는 11월 30일 공식적으로 태국 기독교TV채널을 개국한다. 태국에 기독교가 전해진지 189년 만의 일이다. CGNTV IPTV 채널을 통해 태국 전역으로 복음이 흘러갈 예정이다. 현지 제작센터에서는 예배와 말씀강해를 비롯해 다양한 기독교 프로그램 제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지 목회자들은 CGNTV가 태국 뿐만 아니라 인도차이나반도 전체 복음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CGNTV 함태경 경영본부장이 태국 선교 역사에서 기독교TV채널 개국이 가진 의미를 설명하는 글을 보내왔다.

/ 편집자 주

태국CGNTV 프로그램 제작현장.



인도차이나반도를 위한 ‘하나님의 러브레터’

태국CGNTV, 불교권 선교 협력자로 나선다

태국 기독교 역사는 올해로 189년으로 한국보다 56년 앞선다. 1828년 8월 23일 첫 거주 개신교 선교사 독일인 칼 구츨라프(1803~1851)와 영국인 제이콥 탐린(1793~1880)이 태국에 입국했다. 이에 앞서 1816년 미얀마에서 태국인을 대상으로 한 선교가 미국인 선교사 앤저드슨(1789~1826,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의 아내)을 통해 시작됐다. 구츨라프와 탐린은 사복음서와 로마서 등을 태국어로 번역하고, 영어와 태국어로 된 사전 편찬의 기틀을 만들기도 했다. 1837년 미국 침례교 선교사에 의해 태국 최초의 교회(중국어계 태국인교회)가 세워진 뒤 1882년까지 중국계 태국인을 중심으로 6개 교회와 500명의 성도 규모로 성장했다. 하지만 순수한 태국인(나이 추안)이 세례를 받은 해는 1860년 2월이었다. 미국 장로교 최초의 선교사인 윌리엄 부엘 선교사 부부가 1840년 8월부터 태국에서 사역한지 20년 만에 맺은 결실이었다. 그만큼 태국인들의 복음수용성이 낮았다.

한국 교회의 태국 선교는 1956년부터 시작됐다. 최찬영(김광명) 선교사 가정이 1956년 5월, 김순일(김윤희) 선교사 가정이 1956년 11월 태국에 도착했다. 태국기독교총회(CCT, The Church of Christ in Thailand)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와의 선교협약에 따라 최 선교사 부부는 방콕에서, 김 선교사 부부는 치앙라이에서 사역을 시작했다. 이후 신홍식, 김정웅, 윤수길, 장승희, 박희성, 황윤수, 김성곤, 조준형, 정석전, 강대홍 선교사 등이 교회개척, 태국인 사역자 훈련원, 신학교, 고아원, 마약중독자 재활원, 어린이사역, 학교사역 등에 앞장섰다. 2016년 기준 440가정, 총 850명의 선교사가 활동 중이다. 한국인 선교사들은 교회개척과 더불어 사역의 다양성에 있어 서구 선교사에 비해 절대 우위를 보여 왔지만 팀 사역 지양에 따른 중복사역과 중복투자 심화, 선교지에 맞는 분명한 선교전략 부재, 선교사 자녀 교육으로 인한 선교사들의 대도시 밀집 현상 등으로 보다 효과적인 사역을 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그런 점에서 일전에 만난 한 태국 교회 지도자의 말은 의미심장하다. 일상

생활과 불교가 하나로 융합된 태국인의 세계관을 잘 이해하면 태국 선교가 결코 불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대신 한국 교회의 문화와 전통을 태국에 심으려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부연 설명했다.

“내 생각이 이러니 너도 이를 따라야 한다고 태국인에게 강요하면 안 됩니다. 마치 조종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이죠.”

태국 교회와 미디어선교로 복음화를 1% 장벽을 넘어선다

현재까지 태국 내 공식적인 기독교TV채널은 없다. 지상파TV와 라디오 대부분이 정부가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CGNTV는 2010년 11월 미디어선교의 불모지인 태국 방콕에 제작센터를 설립했다. 앞서 2009년부터 1일 2시간씩 방콕 지역 현지 케이블을 통한 시험방송으로 5만여 시청자가 확보된 상태에서 시작됐다. 2011년 11월에는 뜻하지 않게 홍수 피해를 입은 태국 중부지역의 나콘빠툼 이주민들이 피난처가 돼준 삼연교회에서 공동생활을 하면서 CGNTV로 매일 아침과 저녁 예배를 드리기도 했다. 이재민 중 70% 이상이 크리스천이 아니었지만 대피소 생활을 하면서 많은 이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됐다. 특히 한류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들은 러브소나타 등 한류스타들이 나오는 예배와 집회를 시청하고 복음에 대해 ‘급 관심’을 보였다.

늘 좋은 일만 있지는 않았다. 방콕 온누리 지역에서 방송되던 케이블 채널이 CGNTV 프로그램 송출을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부침을 겪었다. 어려움 속에서 방콕제작센터는 손을 놓지 않았다. ‘생명의 삶’, ‘내 인생을 바꾼 한 말씀’ 등 다수의 프로그램을 제작해 웹사이트(thai.cgntv.net)를 통해 방영했다. 하지만 본사 파견 1인 제작센터 시스템에다가 단독 채널을 갖지 못한 터라 보다 양질의 친화적인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이 원활하지 못했다. 그러던 중 페이스북 가입자 수 세계 1위 도시가 방콕이라는 점에 착안해 제작센터는 발 빠르게 대응하며 페이스북, 유튜브 등 SNS 플랫폼

을 활용해 새로운 방송제작, 공유시스템을 실험해나갔다. 특히 수년간 제작센터를 지켜보며 응원해온 CCT에서 새로운 총회장(타위사 마하차와롯 목사)이 선출되면서 보다 긴밀한 협력 시스템이 구축됐다. CCT는 19개 노회, 844개 교회, 약 17만 여 교인, 5개의 신학교육기관, 2개의 대학교, 8개의 병원, 32개의 외국 선교단체에 116명의 선교사 등을 보유하고 있는 태국 최대교단이다.

제작센터 설립 5주년을 맞은 2015년 9월, CGNTV는 CCT와 MOU를 체결하고 ‘태국(인)의, 태국(인)에 의한, 태국(인)을 위한’ 방송을 본격적으로 선보이기 시작했다. 제작 콘텐츠의 장르에 있어 다변화를 이뤘다. 중계 촬영이 부재한 태국 기독교에서 중계하면 CGNTV를 떠올릴 정도로 양질의 중계팀을 꾸려 각 기관들의 필요를 채워주었다. 태국 침례교단과의 협력을 통해 가정에서도 TV 시청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 ‘Church at home’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매주 토요일 1시간씩 태국의 지상파인 NBT방송에 내보내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태국 크리스천 가정이 사랑 안에서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해나가는지를 보여주는 웹드라마 ‘Beside’를 제작하고, 태국 기독교 NGO I-serve의 자원봉사자 등과 함께 태국 남부 크라비 지역 난민촌에서의 의료사역 다큐 ‘탐디나’, 웹툰 등을 만들어 유통하면서 양질의 기독교 콘텐츠 발원지가 됐다. 태국에서 만든 프로그램이 한국CGNTV를 통해 방송될 정도로 방콕제작센터의 제작수준도 올라갔다.

이에 힘을 받아 태국을 중심으로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을 아우르는 인도차이나반도 선교를 위해 IPTV 개국을 준비해나갔다. 오는 11월 30일 정식으로 개국하는 태국 CGNTV 기독교IPTV는 매일 24시간 방송하는 태국 유일의 기독교TV채널로 2020년까지 10만 잠재 시청자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예배, 말씀 강해 등 고품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무목교회(목회자가 없는 교회)들을 위해서도 복음의 메시지를 흘려보낼 것이다. 일정 궤도에 오른 뒤에는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라오

스어, 미얀마어로 제작된 인도차이나반도 선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편성해나갈 것이다.

이종환 팀장을 비롯해 태국인 11명 직원들은 IPTV 본방송을 높이기 위해 태국어 말씀 강해, 10분 메시지, QT, 기획 세미나, 문화 프로그램(페이퍼 스토리, The12, Holy Travel)과 한국어 문화 프로그램(스윗 사운즈 번역 편집) 등을 제작할 계획이다. 상업광고를 내보내지 않기 때문에 CGNTV는 프로그램과 프로그램을 이어주기 위해 기독교 정신을 담아낸 SB(Station Break)를 제작한다. 현재 방콕제작센터는 ‘1분 기도’, ‘기쁨으로 가득한 12달’, ‘감사의 저녁’, ‘시리얼 싸이 카이’, ‘크로스오버 크리스천 뮤직비디오’ 등 언제든지 방송 가능한 SB를 확보한 상태다. 앞으로 ‘선교지를 만나다’, ‘크리스천 라이브러리’ 등 또 다른 SB를 더 많이 만들어나갈 예정이다. IPTV가 크리스천들의 신앙생활과 영적 성장을 돕는 교육중심으로 편성된다면 모바일콘텐츠는 비기독교인들도 쉽게 볼 수 있는 전도 프로그램 중심으로 제작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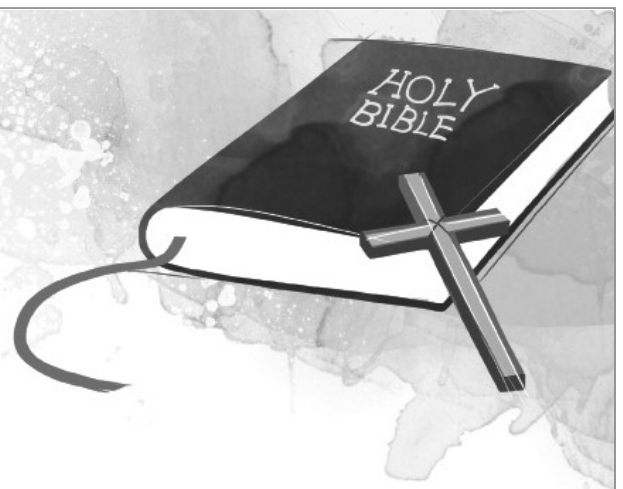
태국CGNTV는 방송국이기 때문에 CCT 외에도 태국복음주의협회(the Evangelical Fellowship of Thailand), 침례교단 등 태국 주요 교단 및 교회, 크리스천들과의 전방위적인 협력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세계 교회의 과제 중 하나인 미디어선교의 새로운 모델 구축과 확산에도 한 획을 그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선교사 수요공급의 불일치, 선교사 노령화, 더욱 견고해지는 복음 전파에 대한 장벽들, 전문인선교 가능성과 한계 등에 봉착한 한국 교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종교에 더 이상 어떤 기대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영적인 것을 더 갈망한다”는 이 시대, 미디어 파수꾼으로서 태국 CGNTV의 활동에 동역자로서 응원을 보낸다.



함태경 경영본부장 (CGNTV)

세계관(世界觀)은 한자로 인간 세(世), 지경 계(界), 볼 관(觀)자를 쓴다. 자연 및 인간의 행위, 생활을 포함한 사회에 대한 통일적이고, 조직적인 파악을 의미한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 세계관이 행동을 결정한다. 그래서 크리스천으로서 올바른 기독교 세계관을 정립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장경철 교수(서울여자대학교 기독교학과)가 기독교 세계관이 무엇이고, 세계관에 대한 크리스천의 자세와 역할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글을 보내왔다.

/ 편집자 주



기독교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창조와 타락,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부활과 종말 회복



장경철 교수
(서울여자대학교
기독교학과)

세계관이란 무엇일까. 이 질문은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진 문제들에 대한 응답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다.

“이 우주에는 나쁜 것들과 무의미한 것들이 많이 존재하지만 동시에 우리 인간들처럼 그것이 나쁘고 무의미하다는 점을 아는 생물도 존재합니다. 무신론만큼이나 단순한 관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물 탄 기독교(Christianity-and-water)’라고 부르는 것으로서 ‘하늘에 선한 하나님이 계시니 만사형통’이라고 말하는 입장입니다. 이 두 가지는 전부 미숙한 철학입니다.”

세계관에는 기독교 세계관과 대립하는 다른 세계관들이 있다. 무신론, 범신론, 이원론이 그것이다. 무신론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세계관이다. 범신론은 우주는 신적인 존재로부터 유출되었다고 주장한다. 즉, 신과 우주 사이에 연속적인 흐름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우주 자체를 하나님과 거의 동일시하여 우주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하나님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우주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일부라고 보는 것이다.

이원론은 모든 것의 배후에 선과 악이라는 동등하고 독립적인 두개의 힘이 있다고

믿고, 우주는 그 두 힘이 끝없이 싸우는 전쟁터라고 간주한다.

기독교 세계관의 정의와 특징

그렇다면 기독교 세계관이란 무엇일까. 기독교 세계관은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중심성, 부활과 종말회복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이다. 하나님의 창조를 강조하는 것이다. 창조된 피조물 중에서 인간만이 만물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다스리라는 문화명령(소명)을 받았다. 문화란 선물로 주신 자연을 열어 상상력을 발휘해 세상을 개발하는

반부를 보면 세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 말씀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세상에 가치를 두고 사랑하셨다는 것이 그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 3:16).

왜 하나님은 인간이 되었을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기독교 세계관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을 증언한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자신 안에 있는 사랑으로 인하여 피조물에게 엄청난

크리스천의 자세와 역할

그렇다면 기독교 세계관 관점으로 볼 때 크리스천들의 역할이 무엇일까.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적인 우정에 참여하는 것이다. 때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혜택을 ‘이주’의 개념으로 설명할 때가 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가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아주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다.

과연 하루라도 빨리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더 좋은 것일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에 있지 않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이 세상을 떠나서 저 세상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갇힌 자아를 넘어서 하나님의 우정에 참여함에 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하나 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정에 참여하는 삶이다. 하나님의 신적인 우정(the divine friendship)에 초청을 받는 여정이다. 그래서 우리는 소명을 마음에 새긴 삶을 살아야 한다.

지금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놓인 특별한 시기다. 교회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알리는데 힘써야 하는 사명이 주어졌다.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우리 크리스천의 마음에서 이루어지고, 이 세상 모든 곳에서도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시민, 소비자, 학생, 부모, 친구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삶의 방식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끊임없이 확장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른 세계관들(무신론, 타종교 등)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태양이 떠오른 것을 믿듯 기독교를 믿습니다. 그것을 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에 의해 다른 모든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다른 세계관이나 종교가 무엇이든지 최소한의 진리의 단서를 갖고 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배우는 자세를 갖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개하기를 원한다면 상대방을 전투의 대상이 아니라 전도의 대상으로 여겨야 할 것이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우정에 참여하는 삶이다”

일이다. 그러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 하나님은 이것들을 바로 잡기를 원하신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이다. 피조물인 나의 인생은 나의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나의 시간의 과정을 밟아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살아 있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 시간이 끝난 다음에 찾아갈 곳이 또 있다는 것이다. 다음 시간이 계속해서 나를 찾아온다.

이 일련의 흐름 속에서 지금 이 시간을 만나는 것이다.

두 번째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중심성이다. 요한 복음 1장 초

가치를 두신 분이다. 가치를 두는 것은 누군가를 잃어버리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자원 또는 존재를 기꺼이 비용으로 지불하는 행위를 말한다. 하나님은 손상된 피조물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하나님이었으나 하나님이 아닌 존재가 되기로 결단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사랑했으며 가치를 두기로 결단한 이 운명적 사건으로부터 출발한다. 손상된 상태로 폐기장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었던 피조물의 운명 가운데 기적적으로 펼쳐진 하나님의 투신사건 위에 기독교가 잉태되었다.

세 번째 특징은 부활과 종말 회복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골 1:18)이시고, 첫 열매(고전 15:20)이다. 종말에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에게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며(계 21:2), 나는 만물을 새롭게 하리라”는 선포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때 이 지상의 모든 것이 변화될 것이다.





2017권사·안수집사임직예배에서 임직자들이 안수기도를 받고있다.

“감사와 기쁨으로 헌신하겠습니다”

2017 임직예배 ... 권사 152명, 안수집사 291명 임직
12월 2일 오후 4시 서빙고 본당 2017 장로장립예배

권사 152명(명예권사 3명, 권사 149명)과 안수집사 291명(남자 90명, 여자 201명)이 온누리교회 새로운 리더십으로 세워졌다. 어제(25일)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 거행된 ‘2017 권사·안수집사임직예배’에서 임직대상자 443명이 임직을 받았다.

임직식은 1, 2부로 나누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이철 장로의 대표기도, CGNTV제라핌합창단의 특송, 이재훈 담임목사의 메시지, 2부에서는 임직 서약, 안수기도, 선포, 이주연 목사(산마루교회)의 권면, 임직증서 증정 순으로 진행됐다. 윤수임 집사(부천)가 여자집사, 양준홍

집사(서대문공동체)가 남자집사, 김정심 권사(분당B)가 권사 대표로 임명장을 받았다.

이재훈 담임목사는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먼저 되리라’를 주제로 메시지를 선포하며 임직자들을 축복했다.

이 목사는 “나의 수고와 헌신에 대해 보상을 원할 때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다”며 “헌신과 봉사를 감사와 기쁨으로 섬길 때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 받게 될 것”이라고 권면했다.

최병선 집사(가정사역공동체)는 “축복의 통로,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

고, 최희수 권사(과천의왕공동체)는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섬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에 임직 받은 대상자 443명은 지난 9월 2일 개강해서 11월 7일(화요일)과 11일(토요일) 종강한 임직 자스쿨을 수료했다. 개인영성훈련(성경통독, 새벽기도, 독서보고서, 큐티, 봉사활동)도 이수했다.

한편 12월 2일(토) 오후 4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2017 장로장립식’이 열린다. 이날 30명이 신임 장로로 장립된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NGO 더멋진세상, 전주비전대와 업무협약

“배움과 사역 기회 제공하기로”

NGO 더멋진세상이 지난 13일 전주비전대학교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전주비전대학교 비전홀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는 한영수 총장(전주비전대), 김창옥 사무총장(NGO 더멋진세상), 최진혁 PM(NGO 더멋진세상) 등 양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전주비전대는 NGO 더멋진세상이 사역하고 있는 선교지의 청년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고, NGO 더

멋진세상은 전주비전대 학생들이 선교지에서 사역할 수 있는 기회와 국제협력 관련 강의 개발에 도움을 주기로 약속했다.

양 기관의 업무협약에 따라 현재까지 NGO 더멋진세상이 섬기고 있는 4명의 청년(파키스탄 3명, 르완다 1명)이 전주비전대에서 유학을 하고, 전주비전대학교 학생 3명(르완다 2명, 세네갈 1명)이 단기선교사로 헌신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서빙고 권사성가대 제1회 정기연주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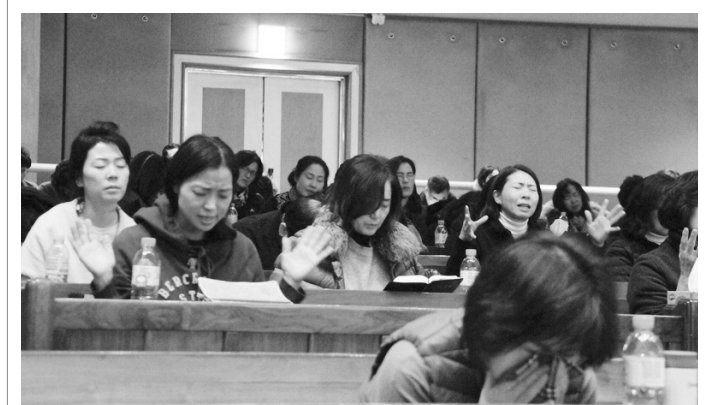
서빙고 권사성가대 ‘제1회 정기연주회’가 12월 4일 오후 7시 30분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막 오른다. 이날 정기연주회에서는 ‘은혜 아니면’, ‘세상을 사는 지혜’ 등 총 12곡을 합창할 예정이다. 장로합창

단, 챔버 등의 특순도 준비되어 있다. 이규남 권사는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전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성도들을 초대했다. 문의: 02-3215-3637

이주민 위한 선교음악회 개최

열방선교네트워크가 오늘(26일) 오후 3시 의정부제일교회에서 이주민 위한 선교음악회 ‘Blessing Migrants’를 개최한다. 선교음악회의 주제는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라’이다. 이번 선교음악회에는 아프리카, 중국, 필리핀 등지에

서 온 이주민 700여 명이 참석한다. 이날 선교음악회에는 8개 언어권(아프리카, 중국, 태국, 네팔, 베트남, 캄보디아, 스리랑카, 필리핀) 찬양팀 공연, 다문화어린이합창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주민을 위한 선교음악회는 올해가 4번째다.



“주어... 수험생들을 안아주옵소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된 지난 23일(목) 양재 온누리교회 사랑홀은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와 일가친지 600여 명이 부르짖는 기도소리로 가득 찼다. 이날 노희태 목사(차세대사역본부장)는 온종일수능기도회 참석자들에게 “오늘은 더 특별하게 자녀들을 격려해주고, 안아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권면했다.

양지 행복예감 콘서트

양지 온누리교회가 지난 주일(12일) 이웃초청 콘서트 ‘행복예감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날 행복예감 콘서트에는 전도대상자와 양지 온누리교회 성도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행복예감 콘서트는 김형미 교수 특송, 이무송, 노사연 부부 특송 및 간증, 도육환 목사의 메시지, 종이 비행기 날리기 세리모니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김형미 교수는

‘잃어버린 계절’, 이무송, 노사연 부부는 ‘사는게 뭔지’, ‘만남’ 등의 히트곡을 불러 참석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도육환 목사(양지 온누리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를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다”면서 전도대상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했다.

/ 김영선 기자

11월 세례자

■서빙고

구현진 730922
김기정 741001
김성욱 731101
박서근 530814
박은실 861205
백승환 791006
임애금 810623
유아
김도훈 160402
김동현 최송이
김예은 160227
김동욱 문선영
김예진 160227
김요섭 양혜원
김하준 161223
김양진 한선희
배유라 161012
배병운 이다원
성지수 160324

성안정 장현미
윤주안 160914
윤동환 장현경
이우진 160504
이승준 이해정
이주형 160112
이석원 윤수민
장사론 161124
장재근 홍정화
정하은 160208
정우균 이지선
차예준 160116
차형태 이나영
황드보라 170104
황기환 김지니
열린새신자예배
강지형 790209
이현진 011031
임수은 890312

최인호 880823
유아
소주는 161209
소은옥 최유경
■양재
권정동 510330
김영조 550218
김지연 780203
김희영 781104
박성주 750528
박수진 870909
전은주 770823
정재연 870419
최은주 820201
유아
강서은 160509
강원교 백은영
강세라 160330
강우식 김혜정

고희원 161220
고동일 김희정
권운서 150815
권혁중 박지인
김다은 160401
김민호 정은희
김서은 160227
김도준 김지아
김시윤 160511
김태윤 윤진실
김이안 170216
김민균 류주연
김지은 160114
김태국 송미선
김 찬 151117
김동영 백혜원
김하은 140820
김태국 송미선
나예림 160726
나인성 김선영

방시는 151025
방주환 정미옥
유기현 151228
유성의 김향란
이예안 151126
이주원 신혜진
이주원 160511
이재중 정한경
장주환 160227
장현준 김지연
조서아 170209
조준호 김은영
조승현 160717
조현준 이한나
이다연 160911
이병후 박현정
■대학청년부
길
이시형 871101

유아
전예은 160605
전영복 조남지
하늘
임나경 970313
입교
김가운 970401
허브
김지유 930518
입교
권소향 960904
김새인 931118
임하림 940416
SNS
김지연 890525
백유진 911001
정다정 890823
입교
윤서연 891023

■ 중등2부 노숙인 밥퍼사역 간증



/ 김예은 학생(서빙고 중등2부)

노숙인을 섬기고부터

나는 지난 5월 서빙고 중등2부에서 노숙인 밥퍼사역을 시작한다는 소식을 듣고 친구들과 함께 동참하기로 했다. 사실 나는 밥퍼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 노숙인에 대한 편견이 있었다.

“노숙인은 나쁘고 험악할 거야. 노숙인은 우리보다 훨씬 성격이 이상할거야.”

편견을 가진 채 첫 번째 노숙인 밥퍼사역을 하러 갔다. 아무생각 없이 노숙인 아저씨에게 식판을 건넸는데 그때 식판을 받은 한 아저씨가 나를 보고 환하게 웃으면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했다. 그 순간 노숙인에 대한 나의 편견이 깨졌다. 그동안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았던 노숙인들에게 너무 죄송했다.

노숙인 밥퍼사역을 시작하고 나서 도덕시간에 사회적 약자에 대해 공부했다. 사회적 약자에는 노숙인들도 있었다. 노숙인이 어떤 사람인지지를 새롭게 알게 되었다. 결국 노숙인들도 우리와 똑같이 평범한 사람이었다. 노숙인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수업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노숙인 밥퍼사역에 참여한 덕분이다. 나는 노숙인 밥퍼사역을 하면서 생각과 마음이 정말 많이 바뀌었다. 만약 내가 노숙인 밥퍼사역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도 노

숙인들을 편견을 가지고 바라봤을 것이다.

우리는 사람들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한다. 세상적인 관점과 편견으로 그 사람들을 피하거나 따돌린다. 하지만 예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래도 될까? 나는 아니라고 답하고 싶다. 나의 기도제목이 바뀌었다.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지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다.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있거나 노숙인들을 보면 이제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없는지 생각하고, 주머니에 있는 돈을 드리기도 한다.

지난 5월부터 노숙인 밥퍼사역을 한 번도 빠짐없이 가고 있다. 내가 잘라서 노숙인들을 도와주러 가는 것이 아니다. 노숙인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전해주고 싶기 때문에 간다. 노숙인 밥퍼사역을 하면 할수록 힘든 것보다 뿌듯함이 커서 그만둘 수가 없다. 노숙인들이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것을 보면서 나도 그분들처럼 사소한 일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다.

앞으로 편견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기를 원한다. 그것이 힘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것이다.

■ 베이직 큐티(Basic QT) 수료 간증



/ 임장현 성도(OCC공동체)

삶에 적용하는 큐티!

지난번에 베이직 큐티 강의를 들을 계획을 세우고 신청했는데 섬기고 있는 사역과 시간이 겹쳐 수강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때마침 공동체 카카오톡(SNS) 채팅방에 베이직 큐티 과정이 개강한다는 공지가 올라왔다. 지난번에 듣지 못했던 나에게서는 정말 반가운 공지였다. 다행히 베이직 큐티 강의 시간과 내가 섬기고 있는 사역 시간이 겹치지 않았다. 하루 차이로 말이다.

그렇게 소망하던 베이직 큐티를 수강하기 시작했다. 시작부터 정말 좋았다. 내가 속한 공동체 강의를 듣는 것은 처음이었는데 평소 알고 있는 집사님들과 함께 들으니 마음이 훨씬 편안했다.

큐티는 온누리교회 교인이라면 정말 많이 들었던 말이다. 순모임을 할 때마다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큐티이기 때문이다. 순원들과 각자 큐티하면서 묵상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그것이다.

사실 나는 어느 정도 큐티를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작년에 들었던 순장학교에서도 큐티 강의를 들었고, 온누리교회에서 진행하는 많은 강의에서 큐티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베이직 큐티를 들으면서 그것은 나의

자만과 오만이었음을 깨달았다. 나는 베이직 큐티 강의를 통해 나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었다. 그것은 바로 큐티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부분이었다.

큐티를 하면서 성경을 읽고, 나를 분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끝이었다. 그저 ‘하나님의 뜻과 성경 말씀 따라 모든 것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하고, 더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한 것이 전부였다. 나의 큐티는 생각만으로 끝나고 있었다. 누군가를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을 어떻게 행하면서 살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까지 발전하지 못했다. 이것 때문에 큐티가 나의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제는 묵상한 말씀을 하나씩 적용해 나가고자 한다.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그치고 삶에 적용하지 않았던 나의 교만을 하나님께 고백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교만으로 나의 삶을 돌아보지 못했다. 이제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맡긴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계획하신 일들을 친히 이루어주시기를 소망한다.

■ 세네갈에서 온 편지



/ 파투가이 자매(세네갈)

“여러분 덕분에 살았습니다”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세네갈에 살고 있는 ‘파투가이’입니다. 먼저 온누리교회 소속 NGO 더멋진세상 세네갈 지부장님과 스테프들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랜 지병으로 매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NGO 더멋진세상과 온누리교회를 만나고 지병을 치료하고, 더 나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선천적 심장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별다른 문제가 없었는데 2015년 말라리아에 감염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의원에 갔는데 그곳에서는 병명을 알 수 없다며 큰 병원에 가보라고 권유했습니다. 그렇게 큰 도시인 ‘짜루이’에 있는 군병원에 갔는데 그곳에서 저에게 심장병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주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살이 많이 빠지고, 숨 쉬는 것도 힘들어 정도로 체력이 떨어졌습니다. 저를 알던 모든 사람들이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자녀들은 하루가 다르게 아위어 가는 저를 보고 아주 힘들어 했고, 남편의 고생도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남편은 저를 치료하기 위해 많은 돈 뿐만 아니라 시간과 에너지를 썼습니다. 남편과 가족들의 재정지원 덕분에 짜루이의 군병원에서 검사와 치료를 받았고, 그랑요프에 있는 종합병원과 판 대학병원에 입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 고통을 멈출 수 있는 치료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에게 남은 치료방법은 수술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술비를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위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NGO 더멋진세상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NGO 더멋진세상과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2천 만원이 넘는 수술비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병원비와 항공료까지 지원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감사의 말을 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요양 중입니다. 다시 한 번 제가 심장병 수술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NGO 더멋진세상과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일을 기억하시고 갚아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 해맞이 거북이 마라톤 대회 참가자 간증



/ 강지원 학생(서빙고 파워웨이브3부)

하나님의 함께하심

‘해맞이 거북이 마라톤 대회’가 열린다는 광고를 듣자마자 참가신청을 했다. 평소 운동을 좋아했던 터라 호기심이 생겼다. 마라톤은 처음 뛰는 거라 설레기도 했다. 그런데 마음 한편으로는 무용을 하면서 다쳤던 발목 때문에 잘 달릴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다.

어느 덧 11월 11일, 해맞이 거북이 마라톤 대회 당일이 되었다. 나는 5km 뛰기 코스에 참가했다. 어르신부터 부모님과 함께 참석한 어린이들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가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출발을 앞두고 잘 뛸 수 있을지 걱정이 몰려왔지만 힘차게 한 발 한 발 뛰어 나갔다. 추위에 움츠렸던 몸이 풀렸고, 그 동안의 걱정들이 사라졌다. 머리가 맑아지는 상쾌한 기분마저 들었다. 한강 길을 따라 뛰다 보니 평소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풍경들이 눈에 들어왔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느낄 수 있었다.

5km를 달리는 것은 생각만큼 녹록치 않았다. 무용을 하면서 다쳤던 발목에서 통증이 오기 시작했다. 너무 힘들어서 중도에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발목이나 발에 무

리가 가면 안 된다”며 참가를 말렸던 주변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그러나 내 곁에는 함께 뛰는 친구들이 있었다. 그들을 보면서 포기할 수 없었다. 무엇보다 완주를 응원해주는 봉사자들을 보면서 힘을 낼 수 있었다. 그 응원이 나의 마음과 몸을 가다듬고 완주를 향해 한 발 한 발 내딛을 수 있는 힘을 주었다. 통증이 오면 걷다가 다시 뛰기를 반복하다보니 어느덧 결승선에 도달해 있었다. 출발한지 41분만이었다. 해냈다는 감격이 밀려왔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와 친구들과 함께하셨음을 깊이 느낄 수 있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이 절로 나왔다.

해맞이 거북이 마라톤 대회를 완주했다는 만족감과 기쁨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 너무 뿌듯했고 기뻐했다.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의 작은 섬김과 참여를 기뻐하실 것 같았다.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해맞이 거북이 마라톤 대회에 참여해서 늘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했으면 좋겠다.

장로칼럼

권사칼럼

영적인 성장에는 끝이 없다



홍성호 장로
(장로 아카데미 총무)

장로아카데미는 장로로 장립된 지 7년 이상 지난 장로님들을 위한 학습공동체다. 지난해 봄 12주 과정으로 처음 개설되었다. 앞선 사례나 모델이 없었기에 오직 하나님의 인도로 진행되어 왔다. 그 과정이 어느덧 네 번째 수료식을 맞게 되어 더욱 뜻 깊다. 11월 28일 4차 수료식을 마치면 수료하신 장로님들의 수가 150명에 가까워진다.

나는 두 해 동안 장로아카데미 실행위원으로 섬기면서 선배 장로님들로부터 많은 것을 보고 배우는 은혜를 누렸다. 지난 세월 우리 교회의 주춧돌 역할을 하시고, 지금은 80세를 훌쩍 넘기신 장로님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깊은 겸손과 그 겸손 안에 담긴 뜨거운 열정이었다. 특히 지난해 장로아카데미 1차 과정에서 만났던 온누리교회 초창기 생활을 해오시고, 나의 아버님과도 가깝게 지내시던 연로하신 장로님께서 어찌나 열심히 과정에 임하시던지 매주 잔잔한 감동과 존경심을 느꼈다. 교회와 세상에서 이미 많은 것을 경험하고 성취하셨을 장로님들이 여전히 겸손하고 열정적인 모습을 보면서 사람의 성장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사람은 언제까지 성장하는가? 육체적 성장은 25세쯤 멈춘다. 대략 60세 전후가 되면 정년이라는 이름과 함께 사회적 성장도 실질적으로 멈춘다. 그러나 영적인 성장에는 끝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완주 단계에 접어든 장로님들을 위해 맞춤형 학습공동체인 장로아카데미를 주셨다.

장로아카데미에서는 12주 동안 성경통독을

한다. 여섯 개조를 구성해서 매일 그룹별 읽기를 진행한다. 성경통독에 임하는 장로님들을 볼 때마다 ‘지난 것은 잊어버리고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선진의 모습’(빌 3장)이 눈앞에 떠오른다. 날마다 말씀의 바다를 항해하는 모습이 얼마나 신선하고 아름다운지 모른다. 또한 매주 네 가지 영역 및 주제(교회, 개인영성과 리더십, 사역, 국가와 사회)에 관한 강의를 듣는다. 이때 강의와 관련된 실천 주제를 놓고 진지하게 토론하는 장로님들의 자세를 본다.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상급을 누리기에 합당한 성실한 청지기의 경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새벽 시간에 장로아카데미에 대해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준비하시고, 장로아카데미로 장로님들을 부르셨다는 것이다. 무엇이 부족해서 채우려 온 것도 아니고, 사람이나 제도에 의해서 불려온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예정하신 상급을 위해 부르셨다. 그러므로 장로아카데미는 학습공동체인 동시에 하나님의 상급공동체이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에 비할 수 없이 높고, 은혜는 더할 수 없이 풍성함을 인정하고 감사할 뿐이다.

하나님께서 여러 교회들 중에 굳이 온누리교회에 장로아카데미를 주신 뜻이 무엇일까. 장로님들 혹은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는 아닐 것이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한국과 세계 교회를 위해 그리고 이웃과 사회와 열방을 위해 장로님들을 새롭게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장로아카데미를 통해 밝게 된 장로님들의 얼굴을 한 분 한 분 떠올려본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연세에 관계없이 날마다 독수리 날개 치듯 비상하고 계실 장로님들께 존경과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리다.

월척 중의 월척



박인숙 권사
(온누리 전도학교)

선교학에서 보통 복음화율이 3% 이하면 ‘미전도 종족’이라고 한다. 지구촌 전체로 보면 아직도 어린이와 청소년 복음화율이 35%가 채 안 된다고 한다. 그리고 보면 미전도 종족이 바다 건너 멀리 있는 것만이 아닌 것 같다. 우리 곁에 있는 다음세대가 미전도 종족이 되고 있어 안타깝다.

차세대들이 미전도 종족이 되어 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미디어가 자녀들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가 생각을 만든다. 반복해서 듣는 사이에 생각의 틀이 생긴다. 대부분의 부모들이 맞벌이 시대인 요즘 미디어가 아이들의 생각에 큰 영향을 주는 ‘대체 양육자’가 되어 버렸다.

나이가 들면 알았던 것도 금세 잘 잊어버리지만 어렸을 때 일은 나이가 들어도 잘 잊히지 않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마음발을 누가 점령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주인이 된다. 그래서 미디어, 게임, 인터넷과 같은 세상 문화가 아이들의 심령을 점령하기 전에 복음을 들려주어야 한다. 차세대들의 마음발을 예수님으로 채워야 한다. 차세대들을 영적으로 방치해 버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본주의자로 전락할 위험이 높다. “제발 누군가 와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전해 주세요”라고 외치는 아이들의 갈망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나는 손녀가 다니고 있는 초등학교 앞에서 전도를 시도해 보았다. 전도지와 멘토스(사탕), 막대사탕, 복음팔찌 등을 준비했다. 아이들에게 먼저 멘토스를 나눠 주면 걸음을 멈춘다. 사실 낙후된 지역에 살고 있는 아이들은 이런 작

은 선물도 고맙게 받는지 모르지만, 새 아파트에서 사는 아이들은 거절할지 모른다는 염려가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기우였다. 금세 아이들이 우리 주위로 몰려들었고, 나의 팔목에 걸린 여러 개의 복음팔찌에 시선이 쏠렸다.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 주겠다고 약속하면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했다. 약속대로 팔찌를 주면서 다시 한 번 복음을 재확인시켰다. 정말 아이들은 우리가 전한 복음을 쉽게 이해하고 그대로 옮겨 말을 했다. “가까운 교회에 꼭 다니자”로 끝내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웠다. 교회까지 이끌어주는 것이 전도자의 임무가 아닌가.

나는 우리 집 주변에 있는 A교회 목사님을 찾아뵙고 어린이 전도에 대해 말씀드렸다. 전도 열정이 있는 목사님이셔서 흔쾌히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다. 3주 동안 토요일마다 직분자들에게 전도 강의를 하고 짝을 지어 전도실습을 했다. 비눗방울, 줄넘기 등을 가지고 가서 아이들과 함께 놀면서 복음을 전했고, A교회도 소개했다.

나는 ‘차세대 전도팀’을 준비하고 있다. 학교 앞에서 전도를 하면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서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전도의 문이 열려 있는 편이다. 우리는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곳으로 달려가야 한다. 어린이 전도는 황금어장에 그물을 던지는 격이다. 흔히 낚시를 할 때 대어(大魚)를 잡으면 환호하지만 치어(稚魚)를 잡으면 다시 놓아 준다. 그러나 영혼의 대어는 사회적으로 지위나 명예, 물질을 많이 소유한 기성세대가 아니다. 어린이야말로 월척 중의 월척이다. 이들이 장차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쓰임 받을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차세대가 우리의 희망인 이유다.

신앙에세이



스티브차 목사
(국제부 담당)

온누리교회는 약 16개 언어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30여 개의 이주민 예배모임이 있다. 지난 10월 셋째 주 주일은 특별한 날이었다. 서빙고 온누리교회에 있는 8개 언어 예배(영어, 일본어, 중국어, 몽골어, 러시아어, 네팔어, 아랍어, 페르시아어)공동체가 이재훈 담임목사님과 함께 연합예배를 드렸다. 올네이션스 예배가 그것이다. 이날 약 650여 명이 모여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다. 올네이션스 예배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연합찬양대의 찬양, 연합성가대의 특송, 요시하라 목사의 기도, 각 예배 영상 상영, ‘한 가족 시간(Community Time)’, 이재훈 담임목사님의 말씀, 기도, 네팔 목사의 축도 순으로 진행되었다. 한 가족 시간에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를 각 나라

말로 배웠다. 예배가 끝난 후에는 다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교제했다. 서로 한 가족임을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1년에 한두 번씩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 개최되는 올네이션스 예배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 복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음을 경험하는 예배이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이 허물어지고, 모든 민족들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한 가족이 되기 때문이다. 올해 올네이션스 예배도 동일했다. 각기 언어가 다른 성도들이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고백하는 시간이었다. 마치 천상에서 드리는 예배(계 7장)를 이 땅에서 체험하는 듯했다. 이재훈 담임목사님의 말씀처럼 예전에는 이 땅의 문화와 언어의 차이가 갈등요인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 한국인과 외국인인 하나가 되고, 주님의 지체와 십자가 사랑을 예배하는 축복의 재료가 되었다. 십자가의 복음은 자신과 가족, 각 나라의 문화,

다함께 예배드릴 그 날을

인종, 언어, 국경의 벽을 극복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상기할 수 있었다.

둘째, 선교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사랑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예배다. 온누리교회 많은 성도들이 여름 아웃리치를 헌신적으로 준비하고 실행하지만 아웃리치가 끝나면 잊어버리기 쉽다. 그래서인지 아웃리치 이후에도 다녀온 선교지를 잊지 않았던 A집사님이 기억에 남는다. A집사님은 몽골 아웃리치를 다녀온 이후에도 몽골예배를 찾아가 계속 섬기고 있다. 우리들의 선교가 여름 프로젝트로 끝나거나 기억 속에서만 남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선교지에서 만나고 온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 뿐 아니라 그 민족 예배에 참석해 선교하는 마음과 삶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란다.

셋째, 한국에 보내주시는 외국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다. 복음이 없는 땅에 우리는 선교사를 계속 파송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2백만이 훨씬 넘는 외국인들을 한국에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지를 생각해야 한다. 보내는 선교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으로 다가온 외국인들을 사랑하며 다가가는 것도 매우 중요한 선교이다. 온누리교회는 이러한 이주민들을 위해 열심히 사역하고 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감당해야 할 소명이다.

기도제목이 있다. 먼저 중국에 개척교회 10개를 세워서 한국에 온 중국인 유학생들을 훈련시키고 파송하려는 중국어예배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린다. 또한 한국에 있는 일본인들을 전도하고, 사역자로 세울 뿐 아니라 일본의 여러 교회를 섬기는 일본어예배를 위해 기도해주시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몽골, 러시아어, 네팔, 스리랑카, 아랍어, 페르시아어 등 서빙고 M미션예배와 안산, 김포, 인천, 대전에서 전도 및 양육훈련을 하고 있는 M센터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주시길 부탁드린다. 모든 백성, 족속,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함께 예배드릴 그 날을 기대하며 선교하는 온 누리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한다.



주일강단

〈3면에 이어〉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교만한 자는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마귀의 계락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내 곁에 있는 마귀를 보지 못하는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교만하면 마귀가 어떤 일을 행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마귀의 협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 마귀의 움직임이 보입니다. 마귀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있는지 겸손한 자는 분별력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마귀의 실체를 볼 수 있고, 그 계락을 피할 수 있으며,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교만의 실제 뒤에는 마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우리의 근심을 주께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세에 사람들을 해치는 세 가지 악에 대해 경고하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주의해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라. 뜻밖에 그날이 갑자기 너희에게 덮고 같이 닥치지 않게 하라”(눅 21:34).

생활의 염려와 술 취함과 방탕함이 동일하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은 보이는 악이요, 생활의 염려는 보이지 않는 마귀의 공격입니다. 이 세 가지가 짓누르면 덮고 같이 닥치게 됩니다.

마귀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대상은 첫 번째는 교만한 사람이고, 두 번째는 근심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마음의 상처인 트라우마도 근심의 일종입니다. 근심 속에 갇혀 있는 그 순간 마귀가 틈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심이 생기자마자 주께 맡겨야 합니다. 어떻게 맡깁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근심을 자기가 맡지 말고, 마귀에게 주지 말고, 주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근심을 숨기거나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 갖고 갈 것인가, 맡 것 인가를 두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은 나 계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마 11:28)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신 분이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내어주신 분이 우리가 주님 앞으로 근심을 가져간다고 해서 우리에게 어리석다고 하시고 노하시겠습니까. 어떤 근심이든지 예수님께 맡길 때 마귀가 우리를 삼킬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게 됩니다.

셋째, 정신을 차리고 믿음 안에 굳게 서야 합니다. “믿음 안에 굳게 서라”는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결사적으로 피하라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굳게 선 자는 마귀가 건드리지 못합니다.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 안에 굳게 서는 것이고, 하나님과 하나 된 상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복음에 순종해야 합니다. 마귀의 공격에 무너지는 것은 옛사람입니다. 우리의 옛 사람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어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가 되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새 언약 안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음을 믿어야 합니다. 십자가가 우리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마귀와 대적하면

마귀는 두루 다니며 불순종하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고 믿음에 굳게 선 자는 건드릴 수도 없고, 건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건드릴 봐야 자기만 손해입니다. 마귀는 불순종하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불순종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불순종하는 한 가지 영역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 온전한데 한 가지만 불순종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마귀의 표적이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단 한 가지도 없도록 믿음 안에 굳게 서야 합니다. 마귀는 전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땅에서 일할 때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합니다. 불순종하는 한 사람은 엄청난 영향력을 줄 수 있습니다. 마귀에게 협력하고 불순종하는 한 사람이 수많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온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 안에 있는 불순종하는 한 가지 영역에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나무로 된 큰 물통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서 한 조각만 구멍이 나도 물이 다 새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한 가지 불순종의 영역이 마귀가 들어올 공간이 됩니다. 마귀는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타락한 천

사들을 동원해서 불순종하는 자를 찾습니다. 그리고 불순종하는 사람을 발견하면 그의 생각과 행동 등 모든 것에 불화살을 쏩니다. 영적전쟁에서 이 불화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와 반대되는 생각과 말들을 뜻합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쏟아지는 불화살은 의심의 불화살입니다. 질투의 불화살입니다. 고독의 불화살입니다. 분노의 불화살입니다. 이러한 불화살들이 우리의 불순종 영역에 들어와서 사로잡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서 믿음으로 진리 위에 굳게 서고 복음 안에 거할 때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마귀와 대적할 때 우리 안에 승리가 임합니다. 그리스도가 이루신 십자가의 승리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종함으로 담대하게 마귀를 대적할 때 주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그분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부르신 분이 잠시 고난 받는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히 세우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벧전 5:10).

당시 성도들이 마귀의 고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고난 속에서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그 약함을 틈 탄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면역력이 약해지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불평하기 시작하니까 마귀가 틈을 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대적하면 굳건해지고, 강해지고, 온전해질 것입니다.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천로역정의 한 부분을 보면 크리스천이 길을 가는데 쇠사슬에 묶여 있는 두 마리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자는 쇠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어느 한 쪽의 사자가 무서워서 한 쪽으로 치우치면 다른 쪽 사자에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자들은 사슬에 묶여 직접 달려들지 못했습니다. 묶여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면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담대하게 주어진 길을 가면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묶여 있는 사자들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두려워하면 당합니다.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축원합니다. 마귀의 공격을 받더라도 전화위복이 될 것입니다. 마귀와 대적함으로 더 온전하고, 견고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목회칼럼



송석근 목사
(광명공동체)

로그그램이다.

구속사는 하나님의 구원역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에 대한 계시적 예언을 말한다.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온통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물로 가득 차 있다.

초대교회 당시 예배소교회에는 공적인 성경 읽기가 예배 가운데 있었다. 교회에서 목회자

설교 외에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소리 내어 읽는 순서가 있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공적인 성경읽기가 예배 순서에서 빠지고, 대신 목회자의 설교로만 대신하게 되었다.

중세 시대에는 성경이 라틴어로만 기록되어서 신부나 사제들의 전유물이 되었고, 일반 성도들에게는 성경 읽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다 1517년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해 성경이 일반 성도들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라틴어 외에 일반 언어로 번역된 성경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오면서 다시금 성경을 읽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하게 하는 많은 영적 방해물들이 있다.

현재 성경읽기는 교회 밖 프로그램으로 성행하고 있다. 그러나 성경읽기는 원래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나는 비전통독 세미나를

통해 성경읽기가 다시 교회 안에서 활성화되기를 소망하고 있다. 모든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성경읽기를 해야 한다. 모든 공동체와 순돌이 성경 읽는 소리로 가득차야 한다.

감사하게도 많은 성도님들이 비전통독 세미나에 참여하고 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그들을 성경읽기의 자리로 인도하고 있다. 참석자 중에는 멀리 경기도 안성에서 버스를 타고 3시간 이상 오는 성도가 계신다. 그분의 소원은 비전통독 세미나가 있는 날 제발 비나 눈이 오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 날씨가 맑으면 버스를 타고 오기가 너무 불편하기 때문이다. 또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다. 그분들은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매주 비전통독 세미나에 참석하고 계신다. 이런 눈물겨운 사연들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상한 심령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육체를 다시 회복하는 역사

가 일어나기를 소망한다.

이제 우리가 사는 길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 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암 8:11).

지금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기갈로 인한 영적 가뭄의 시대가 아닐까? 우리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소해야 한다.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기념비적인 해다.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다시 일어나고 있다. 바라는 것은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꿀송이보다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매일 공급받는 것이다. 우리의 소그룹에서 성경읽기가 불길처럼 일어나기를 소망한다. 한국 교회의 갱신과 부흥이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서빙고

02.793.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본당
2부 오전 9:00 본당
3부 오전 11:30 본당
4부 오후 1:50 본당
5부 (십자가의 길) 오후 4시 경찬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본당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시 본당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본당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본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0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본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본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본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본당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본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권용갑 목사

시간: 매 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문의: 임선양 팀장(010-9782-7733)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송현정(010-9166-8015)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박범식 팀장 (010-5225-1519)

야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6:00~ 8:30 선교관 403호

문의: 윤명자 팀장 (010-3217-9593)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 전도본부 (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주일 오전 11:20 서빙고 한동을

문의: 김영선 팀장(010-3474-7635)

일본어예배

매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을

문의: 김상호 팀장(010-9349-5631)

영어예배

매주일 오후 4:00 본당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주일 13:30 경찬홀

문의: 김창무 집사(010-7917-8008)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

몽골어 주일 14:30 선교관 401호

러시아어 주일 14:00 선교관 301호

네팔어 주일 14:30 선교관 402호/매월 첫주 군포 하나로 센터

아랍어 주일 14:00 본관 B102 / 매월 첫주 선교관 402호

차세대 주일 14:30 선교관 203호

페르시아어 주일 13:30 본관 5층 미션다락방

안산M센터

몽골어 주일 10:30 Joy 201 / 러시아어 주일 10:00

Onnuri Hall / 네팔어 주일 10:30 Peace 303 / 캄보

디아어 주일 10:30 Peace 302 / 미얀마어 주일

10:30 Joy 202 / 필리핀, 파갈록어 주일 10:30 Peace

301 / 태국어 주일 14:00 Peace 303 / 스리랑카어

주일 11:30 Peace 304 / 베트남어 주일 예배 11:00

Peace 305 / 중국어 청년 주일 14:00 Peace 304

다문화 꿈땅 주일 11:00 Star tree / 다문화 파워웨

이브 주일 14:00 Peace 302 / 다문화 애꿈 주일

10:30 B105 / 다문화 대형 주일 14:00 4층 Manna

hall / 인도네시아어 주일 14:00 Peace 305 / 우즈베

케스탄어 주일 14:00 1F StarTree / 파키스탄어 주

일 14:00 Peace 301 / 열방예배 9:00, 11:00 4F

Manna hall

김포M센터 캄보디아어 주일 11:00 양곡

프라자 빌딩 703호 / 차세대 주일 11:00 양곡

프라자 빌딩 705호

화성M센터 열방예배 주일 9:00 301 / 네팔

어 주일 9:00 302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

서빙고: 매주 토 오전8:00 시온홀

양재: 매주 토 오전8:00 JDS홀

대학청년부를 위한 어머니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10:00~12:30 본관 B102호

문의: 정혜경(010-8562-2133)

군 선교와 군입대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서빙고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214

마리아행전 중보기도모임

나라와 민족 위해 기도하는 기도부흥운동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신관 3층 드림홀

문의: 여성사역 (3215-3227)

북한중보기도모임 안내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9시

장소: 선교관 403호

문의: 송용주 형제(010-8591-8236)

병원사역예배/환우기도모임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12:15~2:30

장소: 서빙고 신관 301호

대상: 봉사자 및 환우 중보 요청자

문의: 이재신 팀장(010-4753-3150)

Acts29비전빌리지 열방예배

-매주 월~금/오전 10시30분-12시30분

-서빙고출발 09:00, 양재출발 09:30

-Acts29비전빌리지(양지)출발 15:00

한터 공동체 예배

탈북민사역에 관심있는 분들을 위한 예배

시간: 매주 오전 10시

장소: 한누리 본부(지하철 9호선 가양역

6번출구, 투썸플레이스 건물 6층)

TIM MK 중보기도 모임

시간: 매월 셋째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302호

문의: 김동희 간사(070-4464-8119)

차세대 목요어머니기도회

개강: 9월 7일(목) 오전 10시 30분

신관 4층 누리홀

온누리가족 나무동산(공원묘역) 잔여

기 계약자 모집

자격조건: 온누리교회 등록교인만 계약이

가능(계약자의 가족까지 안함)

동산위치: (재)충효공원(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공촌리 산 152-2)

사용안내: 매장방식의 납골과, 봉분에 의한

매장

잔여수량(가): 80기

문의: 02-3215-3178-9

CMN 드림팀 봉사자 모집

일시: 매달 둘째 주일 오후 2시~6시

장소: 안산 CIS 고려인교회

모집: 치과외과, 치위생사

문의: 010-4230-1474, 010-2586-5447

CMN 라파팀 봉사자 모집

일시: 둘째 주일 오후 4시~6시

내용: 서빙고 M미션 외국인 진료

문의: 심형섭 팀장(010-3227-9915)

김포M센터 다문화 꿈땅 교사 모집

대상: 유치부~초등부 저학년

시간: 주일 11시~1시

문의: 민경윤 전도사(010-2997-4347)

두란노서원 유아유치부 QT지 창간

교재설명회(무료)

일시: 11월 27일 오후 2시~5시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두란노홀

접수: www.duranno.com/seminar

온누리선교재단 직원 채용공고

모집: 계약직(서빙고 한식당 조리사 및 조

리원, 양재 커피숍 직원, 양재 건축/

인테리어 담당자)

자격: 세례교인, 경력무관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신앙간증문

문의: 총무팀(02-3215-3102)

양재

02.570.7430

주일예배(사랑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7부 9시에 뜨는별 오후 9: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월요QT예배

매주 월요일 오후 7:30 화평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목요찬양예배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7:50 기쁨홀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 오후 11: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4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50, 하용조 기념홀

문의: 최문환 팀장(010-5157-2009)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20 트리니티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

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Toddler 24~48개월(주기철채플실)

Jesus Rock 5세~초등1(충성홀 9:00)

Jesus Crew 초등2~초등6(JDS홀 9:00)

Jesus Vine 중등1~중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9시, 2부 오전 11시 3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부: 도곡1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도곡1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도곡1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도곡1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예꿈: 도곡1관 꿈터(B동 1층)

꿈땅: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도곡교육관 주일 11:0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11:00 영어 차세대예배

Hope Zone(Newborn~Age4)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Love Zone(Age5~Grades2)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Joy Zone(Grades3~6)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OEM Youth(Grade7~12)

: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

(청년부)

갈렐 청년부 예배: 도곡2관(중대부고5층)

사랑부 예배(장애 학생)

주일 오전 9:00 비전홀B

문의: 이루주 전도사(010-9150-5190)

프랑스어 예배

설교: Jean-Martin Wehrey

일시: 주일 오후 2:00

장소: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9108-8383 *통역 지원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

들을 위한 공동체

매주일 14:00 양재 JDS홀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병원사역예배와 환우기도모임

장소: 양재 비전홀A

시간: 매주 수요일 10:30-14:00

문의: 김정숙 팀장(010-4946-3832)

K N O C K 미 니 휴 먼 다 큐



별난 비행 청소년이었던 그가 이제는 위기 청소년들을 돌보다!
 <별을 만드는 사람들> 심규보 대표가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청소년들의 새로운 꿈

“괜찮아, 너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야”

이 세상 누구보다 특별한 ‘별’들과 함께하는 반짝이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2017년 11월 26일 바로 오늘!
 CGNTV 노크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만나보세요



www.facebook.com/cgntv.knock